

표지 면지

상생복지를 위협하는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책

프로그램

인사말씀

14:00~14:15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	--------------------------------------	--

발제

14:15~14:35	01 발제 애니멀 호딩 위험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례들, 성과와 한계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14:35~14:55	02 발제 해외의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회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14:55~15:15	03 발제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서울시의 대책	윤민 서울시 동물복지과 주무관	

토론

좌장 : **함태성**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15:15~15:25	01 토론	박지영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5:25~15:35	02 토론	송민경 석관동 주민센터 주무관	
15:35~15:45	03 토론	김수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심 기획실장	
15:45~15:55	04 토론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5:55~16:30	01 Q&A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	------------------------	--

목 차

발제

- 01. 애니멀 호딩 위험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례들, 성과와 한계 1
김현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 02. 해외의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회복지 21
김성호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03.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서울시의 대책 33
윤민 | 서울시 동물복지과 주무관

토론

좌장 : 함태성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01. 박지영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3
- 02. 송민경 | 석관동 주민센터 주무관 49
- 03. 김수진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쉼 기획실장 53
- 04. 김철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57

별첨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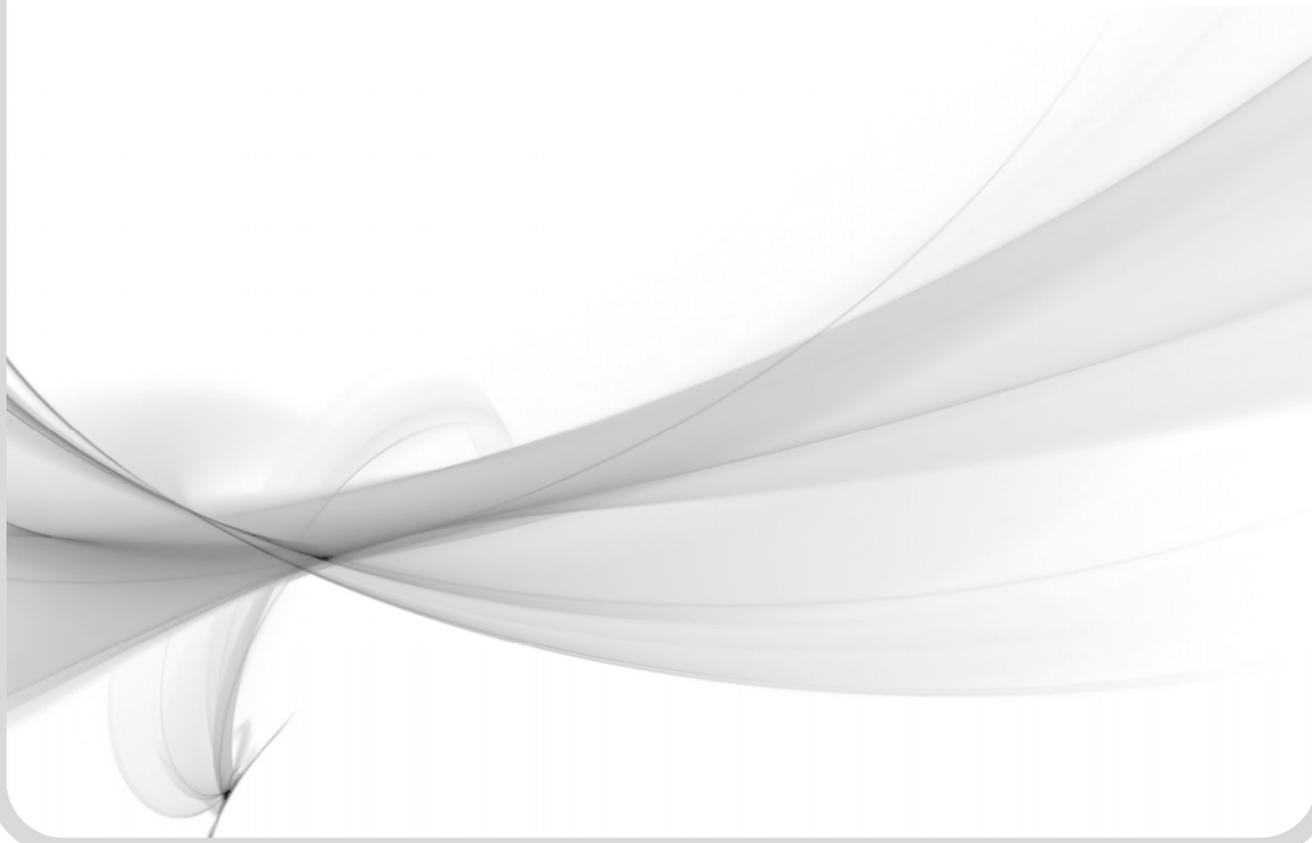
질 의 응 답

전 체 토 론 147

· 발제 01 ·

애니멀 호딩 위험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례들, 성과와 한계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애니멀 호딩 위험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례들, 성과와 한계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1. 들어가며

애니멀 호딩이란 동물들을 축적하듯 사육하지만 위생, 영양, 치료 등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을 질병, 굶주림, 사망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경우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부터 개체번식이 비일비재하고 유기동물이 넘쳐나지만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마저 없는 구조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3의2호는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애니멀 호딩으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또한 생명이 아닌 물건에 대한 호딩의 경우 2018년부터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권환경 개선을 지원 해오고 있으나¹⁾ 애니멀 호딩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러해 전부터 동물보호 최전선에서 다수의 애니멀 호딩 사례를 접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최선을 다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 건건마다 심각하고 재발의 위험이 있는데다 다수의 동물들로 대형 문제이기 일쑤인 모든 애니멀 호딩 이슈를 민간 동물단체의 힘으로 오롯이 감당하기란 태초부터 불가능했다.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돌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신보건 등 유관된 다양한 영역이 애니멀 호딩 이슈를 더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1)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경기도 평택시, 전라북도 군산시,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이 많다.

-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장강박 가구는 2016년 8월 기준 총 312개 가구로 집계되며 영등포구(40), 금천구(32), 동작구(28), 성북구(27), 서대문구(22), 노원구(21) 순으로 높았다.

- 영등포구는 자체적으로 2018년 12월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한 바 있다.

2. 돌봄 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사업과 애니멀 호딩 위험군

1) 사업 개요와 결과 요약

동물 유기 및 방지, 번식 예방을 위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시의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용은 돌봄 취약층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동물등록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카라 동물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6개 병원을 본 사업을 위한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상시 접수 및 제보를 병행하였다.

- 돌봄 취약층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저소득층, 인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애니멀 호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으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서울시내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구청, 임대아파트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홍보가 이뤄졌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로 했으며²⁾, 일부 애니멀 호더나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은 사업단이 사전 현장조사까지 진행한 뒤 접수가 확정되었다. 인당 지원 마리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치료지원을 추가 하였다.
- 12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11월 12일 기준, 363마리의 중성화 수술과 322마리의 건강검진, 383마리의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등 총 1,068건의 동물 의료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의료서비스가 진행된 동물 기준으로는 486마리, 접수된 신청자 기준으로는 280인이다³⁾.

2) 보통 저소득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각종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신청은 보통 가구단위로 되는 것이 기본이며, 가구단위로 될 경우 함께 거주중인 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은 중위소득 60% 이내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한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납입 증명서 등을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할 수 있다.

3) 취약지구(재개발)로 접수된 신청자 5인을 취약가구 신청자 275인과 더하면 11월 12일 기준 총 신청자 수는 280인이다.

4 상생복지를 위협하는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책

〈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 총 1,068건의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2019.11.12 기준) 〉

	일반	취약가구 (저소득/애니멀호더)	취약지구 (재개발)	합계(마리)
중성화 수술	-	321마리	42마리	363마리
건강검진	-	321마리	1마리	322마리
동물등록	81마리	255마리	47마리	383마리
합계(건)	81건	897건	90건	1068건

*기타 치료는 미합산

이 가운데 취약지구(재개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서비스(52마리, 90건)를 제외하여 취약지구를 따로 구분하면, 11월 12일 기준, 275인 신청자의 반려동물 434마리가 동물등록,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을 받았다.

〈 신청자 275인의 저소득 여부, (단위: 명) 〉

소득 유형		신청자 수		비고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취약 가구 (198)	139		동물등록,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58		
일반		1	78	- 1인은 일반이지만 애니멀 호더 위험군으로 구분 - 일반에 대한 지원은 동물등록 으로만 한정
	77			
합계		275		

〈 275인 신청자의 의료서비스 대상 반려동물 434마리의 기본 정보, (단위: 마리) 〉

	암컷	수컷	확인중	합계
개	192	159	0	351
고양이	49	32	2	83
합계	241	191	2	434

〈 반려동물 434마리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 (단위:마리) 〉

의료서비스	동물 수	비고
동물등록+건강검진+중성화 수술	224	
건강검진+중성화 수술	95	
동물등록	113	
동물등록+건강검진	2	
합계	434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중위소득 60%이내)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되, 일부 동물등록의 경우에 한하여 중성화 지원 사업 홍보 차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동물등록을 무료 지원하였다. 일반 시민에게 제공된 동물등록은 77명, 81마리 이다.

- 취약지구(재개발)를 제외한 신청자 275인 가운데 이상의 일반 시민 77인을 제외한 198명을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애니멀 호더)로 보고 이들에게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자 가운데 취약가구 198인의 의료서비스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의 기본 정보, (단위: 마리) 〉

	암컷	수컷	확인중	합계
개	159	113	0	272
고양이	48	31	2	81
합계	207	144	2	353

본 자료집에는 1차 통계 분석을 돌릴 수 있었던 취약가구 151명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별첨 수록하였으며⁴⁾,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자료를 추가하여 2차 통계 분석을 돌릴 예정이다.

2) 애니멀 호더 위험군

동물권행동 카라는 올해 돌봄 취약층 대상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직접 제보와 신청 접수를 받다가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한 보호자(가구)를 발견하였다.

본 사업의 맥락에서 카라가 만날 수 있었던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는 17개 가구였다. 여기에서는 17개 가구의 경우 모두를 소개할 것이나 1개 가구는 검토 단계에서, 또 1개 가구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번고가 생겨 중성화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2명은 취약가구 신청자로서 공식 집계되지는 않았다.⁵⁾ 하지만 이 2개 가구는 애니멀 호더 위험군 중에서도 ‘애니멀 호더’임이 매우 명백했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여기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4) 본 자료집에는 카라가 수행한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 (11월 12일 기준) 돌봄 취약가구 신청자 198인 가운데 151인의 내용이 반영된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실태조사’ 1차 통계분석 결과와 설문지가 별첨 수록되어 있다. 조사의 방법은 설문지에 바탕한 1:1 서베이 조사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통계분석 결과는 별도의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나 여기에서는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5) 이 2명은 실제 중성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취약가구 신청자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설문을 받을 수도 없었다.

○ 취약가구 신청자 198명 가운데 애니멀 호더이거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해 있는 15명(가구)을 발견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청자로 포섭되지는 않았으나 애니멀 호더로서 접수를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중성화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2명(가구)까지 포함 하면 서울시 내에서 애니멀 호더 위험군 총 17개 가구를 만날 수 있었다.

○ 이들은 중위소득 60%이내 지원 요건에 해당되어 직접 신청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제보를 통해 첫 연결이 이뤄진 후 사업단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애니멀 호더를 포함한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한 보호자 대부분이 본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였다.

〈 애니멀호더 위험군에 속한 보호자 소득유형 확인 결과(단위:명) 〉

소득 유형		비고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애니멀 호더 위험군 (17)	10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4	
일반		3	- 1인은 월소득 50~60만원 - 1인은 정기 월소득으로 노령연금 20만원이 전부
합계		17	

○ 애니멀 호더 위험군은 소득유형 분류상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일반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없었다.

가.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대한 설문 결과

카라는 2개 가구를 제외한 설문 대상 15가구 가운데 12가구로부터 설문지 취합에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여러 사유로 설문이 이뤄지지 못한 5개 가구의 경우 설문지 정보가 없을 뿐 현장방문은 모두 이뤄진 바 있다) 이는 돌봄 취약가구 중에서도 애니멀 호더를 포함하여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한 취약가구 신청자가 스스로 응답한 내용을 따로 살펴본 것이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12가구의 설문 응답 〉

구분	빈도(명)	비고	
성별	여성	8	*
	남성	4	
	총계	12	

구분	빈도(명)	비고	
연령대	20대	1	
	30대	2	
	40대	2	
	50대	5	*
	60대	1	
	70대	0	
	80대	1	
	총계	12	
주택형태	단독주택	3	
	연립/다세대	5	*
	아파트	4	
	총계	12	
동거 가족의 수	0명	6	*
	1명	2	
	2명	1	
	3명	2	
	4명	1	
	총계	12	
가구 월소득	50만원 미만	0	
	50-100만원 미만	3	50만원/50만원/80만원
	100-150만원 미만	3	100만원/100만원/130만원
	150-200만원 미만	1	166만원
	200만원 이상	3	200만원/200만원/250만원
	무응답	2	
	총계	12	

- 성별은 여성이 높았고, 연령은 50대가 제일 많았다.
- 단독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높았는데, 주택 내에서는 단독보다 연립/다세대가 많았다.
- 동거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독거가 많은 것은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 결과와 단순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다.
- 가구 월소득은 50만원 2명, 80만원 1명, 100만원 2명, 130만원 1명, 166만원 1명,

200만원 2명, 250만원 2명, 무응답 2명으로 100만원 미만 3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명, 200만원 이상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고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해온 기간	5년 미만	3	
	5-10년 미만	4	
	10년 이상	4	
	무응답	1	
	총계	12	
현재 반려동물 총 마리수 정보 기재	부정확하게 기재	10	*
	대체로 정확하게 기재	2	
	총계	1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복수응답)	동물을 좋아해서	8	*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7	
	외로워서	3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3	
	타인의 권유나 부탁으로	1	
	아이들 정서상 교육목적	0	
	가족 분위기 개선	0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0	
	총계	2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펫샵에서 구매	2	
	직접/간접 구조	6	*
	지인으로부터 받음	3	
	무응답	1	
	총계	12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지출	5만원 미만	4	*마리당 지출을 반려동물 총 지출로 잘못 답변한 경우도 있어 보임
	5-10만원 미만	3	
	10-15만원 미만	1	
	15-20만원 미만	0	
	20-30만원 미만	1	
	30만원 이상	2	
	무응답	1	
	총계	12	

○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해온 기간은 '10년 이상'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각각 4명으로 제일 높았다.

- 현재 양육중인 반려동물 총 마리수는 확인 결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를 복수응답 받은 결과, '동물을 좋아해서'가 8명으로 제일 높았고, '유기동물이 불쌍해서'가 7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은 '외로워서'와 '우연한 기회'가 높았고 각각 3명이었다.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결과와 단순 비교할 때 복수응답인데도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 목적'이나 '가족 분위기 개선'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이 두드러진다.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직접/간접 구조'가 제일 높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음'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직간접 구조 응답이 높은 것은 '지인으로부터 받음' 응답이 제일 높았던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결과와 단순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다.

구분		빈도(명)	비고
동물등록 여부	모두 했다	0	
	일부만 했다	4	
	모두 안했다	8	*
	총계	12	
동물등록을 한 이유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3	
	총계	3	
동물등록을 안한 이유	내장형칩의 부작용 우려	3	*
	동물등록 비용 부담	2	
	잘 몰랐다	1	
	시간내기 어려웠다	1	
	고양이여서	1	
	무응답	1	
	총계	9	
지금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	수술비가 비싸다	8	*
	수술이 겁난다	1	
	잘 몰랐다	1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1	
	중성화는 동물학대다	1	
	총계	12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	잘 알고 있다	2	
	대체로 알고 있다	3	
	병원서 시키는 대로 한다	2	

구분		빈도(명)	비고
	아예 모른다	5	*
	총계	12	
(지난 1년간) 동물병원 방문 경험	있다	9	*
	없다	3	
	총계	12	
(지난 5년간) 반려동물 사망 경험	있다	8	*
	없다	4	
	총계	12	

- 애니멀 호더 위험군은 동물등록을 안한 경우가 많았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내장형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가 제일 높았다.
- 한편 동물등록을 한 이유는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였다.
- 지금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비가 비싸다'는 응답이 대다수 였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제일 높았다.
- 지난 1년간 동물병원 방문 경험은 '있다'가 많았다.
- 지난 5년간 반려동물 사망 경험은 '있다'가 많았다.

구분		빈도(명)	비고
반려동물로 인한 삶의 만족도	긍정적	10	*
	부정적	2	
	총계	12	
반려동물 양육시 어려운 점 (복수응답)	이웃의 항의나 갈등	6	
	비용이 많이 든다	6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	5	
	교육이 어렵다	4	
	내게 건강이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가 힘들다	3	

	위생상의 문제	2	
	장기외출이 어렵다	2	
	가족의 반대	1	
	반려견놀이터 등 시설부족	1	
	기타	1	산책 매일가기 힘들다
	총계	31	
내게 반려동물의 존재란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7	*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3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2	
	정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0	
	내가 잘 모르는 곳이라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0	
	총계	12	
반려동물 포기 총동	있었다	5	
	없었다	6	*
	무응답	1	
	총계	12	
포기 총동의 사유 (복수응답)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4	*
	가족/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2	
	비용문제로 감당하기 힘들 때	2	
	집의 환경이 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 힘들어서	1	
	위생 문제가 생겨서	0	
	이사갈 때	0	
	총계	10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2	*
	어느정도 필요하다	0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잘 모르겠다	0	
	총계	12	

- 반려동물로 인한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10명으로 대다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도 2명 있었는데, 부정적 답변의 존재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고 부정적 답변이 매우 희소했던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결과와 단순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
- 반려동물 양육시 어려운 점을 복수응답 받은 결과, '이웃의 항의나 갈등'과 '비용이 많이 든다'가 각각 6명으로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 5명, '교육이 어렵다' 4명, '내게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가 힘들다' 3명 순이었고, '위생상의 문제'와 '장기외출이 어렵다'가 각각 2명이었다.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결과에서는 '장기외출이 어렵다'가 제일 높았는데 이와 비교된다.
- 반려동물의 존재에 대하여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가 7명으로 제일 높았다.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결과와 단순 비교시 제일 높은 답변은 같았으나 희소한 답변이었던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가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서는 3명이나 되는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 반려동물 포기 충동은 '없었다'가 6명으로 '있었다' 5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는 돌봄 취약가구 151인 설문결과와 단순 비교시 포기 충동경험이 있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결과다.
- 포기 충동의 사유를 복수응답 받은 결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웃간 갈등'과 '비용문제'가 각각 높았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은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대한 관찰 결과

다음은 이용자 설문이 아닌 사업단이 직접 관찰한 결과로 애니멀 호더를 포함한 애니멀 호더 위험군 17개 가구에 대한 사례와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다.⁶⁾

6) -미국 매사추세츠 애니멀 호딩 연구 컨소시엄(The 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 HARC)은 2006년 애니멀 호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 애니멀 호더를 '힘에 부치는 보호자(overwhelmed caregivers), 구조자(rescuers), 착취자(exploiters)로 구분하여 접근했는데, 이번 애니멀 호더 위험군 17개 가구는 (아직 모두를 애니멀 호더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로 '힘에 부치는 보호자'와 '구조자' 유형이 많았던 것 같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17인(가구)의 특징 〉

	소득 유형	반려동물 종류	신청/지원 마리수	실제 양육 마리수	동물 상태	비고
1. A (51세) *현장방문	수급자	고양이	5마리	5마리	-돌봄 상태 양호하 지 않은 편	-중성화 없이 외출냥이 -1마리는 종절 병행 -위생문제 다소 관찰 -이웃갈등
2. B (20세)	수급자	개	7마리	7마리	-친화도 낮은 편	-모두 품종견 -마리수를 숨김 -수컷만 기중성화
3. C (59세) *현장방문	수급자	고양이	7마리	7마리	-친화도 매우 낮음 -돌봄 상태 양호한 편	-보호자 손 안탐 -수컷만 기중성화 -일부만 예방접종
4. D (45세)	수급자	개/고양 이	3마리	3마리 이상	-돌봄 상태 양호하 지 않음	-마리수를 숨김 -구조 계속 진행
5. E (51세)	수급자	개/고양 이	5마리	11마리	-건강 상태 양호한 편 -돌봄 상태 양호한 편	-마리수를 숨김
6. F (68세)	수급자	개	2마리	최소 23마리 이상	-돌봄 상태 양호하 지 않은 편	-진도 18마리, 시츄 4마 리 등
7. G (80세)	수급자	개	3마리	3마리 이상	-친화도 매우 낮음 -돌봄 상태 양호하 지 않은 편	-모두 믹스대형견 -구조 계속 진행
8. H (40세)	수급자	개	3마리	5마리	-건강 상태 양호하 지 않음	-모두 품종견 -교배 의지가 있었음 -양육에 대한 가족간 갈 등 관찰
9. I (53세) *현장방문	수급자	개	14마리	14마리 이상	-친화도 양호 -질환 발견되지 않 았으나 더러운 귀, 눈꼽, 피부 발진 관 찰	-모두 품종견 -교배 의지가 있었음 -마리수를 숨김 -일부 수컷 기중성화 -주거확인 극구 반대 -아파트 (7평서 14마리 이상)
10. J (50세) *현장방문	저소득	개	15마리	15마리	-친화도 낮은 편(경 계) -건강 상태 양호 -분리불안	-자체번식 -이웃갈등 -퇴거 위기 -다세대 (좁은 원룸서 15 마리)
11. K (43세) *현장방문	저소득	개/ 고양이	17마리	36마리	-친화도 양호 -건강 상태 양호하 지 않음 -돌봄 상태 양호	-모두 품종견 -일부 수컷 기중성화 -보호소 기능 -일부는 반려견/일부는 입양 보내기 시도중 -위생 상태 양호 -단독주택

	소득 유형	반려동물 종류	신청/지원 마리수	실제 양육 마리수	동물 상태	비고
12. L (70대) *현장방문	저소득	개/고양이	8마리	최소 25마리 이상	-친화도 극히 낮음 -돌봄 상태 나쁨	-대부분 믹스대형견 -보호자 손 안탐 -구조 계속 진행 -중성화 없이 외출냥이 -단전, 단수 -위생문제 -이웃갈등 -단독주택 -물건 쌓여 있음, 집안수리 불가
13.M (70대) *현장방문	수급자	개	14마리	14마리	-친화도 낮은 편(경계) -다소 말랐지만 건강 상태 양호 -돌봄 상태 양호하지 않은 편	-위생문제 -다세대 (좁은 원룸)
14.N (38세)	저소득	개	6마리	6마리	-친화도 낮은 편(경계)	-모두 대형견 -양육에 대한 가족간 갈등 관찰
15.O (59세) *현장방문	일반 (월소득 50~60만원)	고양이	5마리	최소 5마리 이상	-친화도 매우 낮음 -건강상태 양호	-중성화 없이 외출냥이 -위생문제 -이웃갈등 -연립/다세대 -물건 쌓여 있음
16. P (70대) *현장방문	일반 (월소득 노령연금 20만원)	고양이	-	최소 25마리	-친화도 낮거나(경계) 매우 낮음 혼재 -일부 건강상태 양호하지 않음 관찰	-자체번식 -양육에 대한 가족간 갈등 관찰 -이웃갈등 -퇴거 위기 -단가스 -위생문제 -다세대 -물건이 거의 없음
17. Q (59세) *현장방문	일반	고양이	-	최소 80마리	-친화도 매우 낮음 -일부 건강상태 양호하지 않음 관찰	-구조 계속 진행 -이웃갈등 -거주지 문제 -위생문제 -다세대 -물건 외부에 쌓여 있음

○ 17가구의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만 양육 8가구, 고양이만 양육 5가구, 개와 고양이 모두 기르는 경우 4가구 였다.

○ 이들은 가구당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약 8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최소 10마리 이상 키우는 것이 확인된 가구만 9가구였다.

- 양육 반려동물 마리수가 많은 경우,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조차 정확한 양육 마리수를 알고 있지 못하여 끝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 의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마리수를 숨기는 경우도 관찰 되었다. 양육 동물 마리수 뿐만 아니라 이름, 성별, 중성화 유무 등 개체 정보까지 매우 부실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이름이 없거나 보호자가 개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동물이 보호자 손을 전혀 타지 않아 내부 포획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취약가구 신청자 198인의 대상 반려동물 353마리 가운데 품종은 211마리(59.8%)로 믹스 142마리(40.2%)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애니멀 호더 위험군 취약가구 가운데서도 반려동물이 '모두' 품종인 경우가 최소 5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 품종이 대다수인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최초에는 브리딩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고양이를 양육하는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중성화 수술 없이 자체 번식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성화 수술 없이 고양이를 외출냥이로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취약가구 중에서는 동물 구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최소 4인 이상이었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취약가구 가운데 일부는 보호소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취약가구는 반려동물 등록이 거의 되어있지 않았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취약가구는 중성화 수술이 대부분 되어있지 않았다.
- 일부 수컷에 대해서만 기중성화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중성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도 잠복고환인 수컷 내지 암컷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발정 스트레스 등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1차적인 번식을 막기 위해 선택적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에 속하는 취약가구는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도 대체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거하기에도 부족한 위생적 문제들이 관찰 되기도 했다.
- 동물 양육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 혹은 가족간 갈등이 있는 경우가 최소 6건 이상이었다.
- 퇴거 위기에 몰려 당장 보호자의 거주지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한 경우가 최소 2인 이상이었다.

〈애니멀 호더 위험군 특징 요약〉

- 애니멀 호더 위험군 대부분이 저소득 기준도 충족 시켰다.
-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최소 80마리 이상을 키운다.
- 반려동물 양육 마리수를 밝히길 꺼리며, 정확한 마리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 보호자가 정확한 개체 정보를 모르고 반려동물이 보호자 손을 안타는 경우도 있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운데 모든 반려동물이 품종인 경우도 꽤 관찰된다.
- 중성화 수술 없이 고양이를 외출시킨다.
-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운데 동물 구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
-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
- 수컷만 선택적으로 중성화 시킨 경우도 있다.
- 대체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동물들을 기른다.
-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 이웃간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 퇴거 위기로 보호자의 거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경우가 있었다.

3. 제언

1) 애니멀 호더 위험군 관리가 시급하다.

2) 애니멀 호더 위험군 접근시 저소득층도 유효한 접근 방법이다.

애니멀 호더 위험군 선별 및 취약가구 적정 돌봄을 위하여 저소득층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애니멀 호더 문제에,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애니멀 호더 위험군 선별은 마리수가 다가 아니다.

다두 사육이 위험을 가중하는 것은 사실이나 애니멀 호더 위험군은 단순히 마리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소수의 동물을 키우더라도 충분히 애니멀 호더 위험군이 될 수 있다. 주거 환경, 건강과 친화도 등 동물들의 상태와 마리수, 보호자가 동물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수준, 위생문제, 물건을 쌓아둠 등 여러 항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 외면과 방치 대신 애니멀 호더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독거 생활과 건강, 퇴거위기, 경제적 소득, 사회적 괴리와 이웃/가족 갈등, 심리적 문제와 정신치료 등 애니멀 호더는 복합적 차원에서 내몰린 경우가 많은 만큼 애니멀 호더와 애니멀 호더의 동물을 ‘동물 문제’로 범주화 한 뒤 ‘동물 문제는 별개’ 라고 선긋지 말고 애니멀 호더와 호더의 동물 모두를 다층적 제도 속에 편입시켜야 한다.

5) 유기동물 문제의 해소가 애니멀 호더 문제의 예방이 되기도 한다.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양육 경로로 직간접 구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번식의 만연과 넘쳐나는 유기동물 등 구조적 요인이 애니멀 호더 발생 위험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치되는 생명 및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 해소가 애니멀 호더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6) 중성화 수술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되어야 한다.

이상의 맥락과 같으며, 중성화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해서는 취약가구 전반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취약가구 전반에 대한 올바른 돌봄 교육과 지원도 필요하다.

기본 돌봄상식과 예방접종, 위생관리, 반려동물 교육 TIP, 펫티켓 등에 대하여 배움을 확산 시켜야 한다.

8) 무책임한 돌봄과 방치가 가능한 환경에는 구조적 제어가 필요하다.

아무나 동물을 쉽게 얻거나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관련 법제 강화가 요구된다.

• 발제 02 •

해외의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회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회복지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물과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¹⁾을 끼칠 수 있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잘못 이해되고 과소평가 되어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애니멀 호딩은 범죄인가 혹은 정신질환인가? 또한 애니멀 호딩은 동물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국내 애니멀 호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애니멀 호딩에 대한 현황과 연구결과, 그리고 대응 방안들을 정리해보았다.

1. 애니멀 호딩을 정신질환으로 정의하고 분류하기 시작.

- 1980년대 이전에는 애니멀 콜렉터(animal collector)라고 부르다가 1993년 정신과 학술지에 “hoarding”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다. 애니멀 콜렉터가 단지 개인의 취미로 여겨 질 수 있는 것에 반해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이라는 용어가 animal collector 보다 의학, 심리학, 정신과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애니멀 호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 hoarding 행동은 정신 건강분야에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여 2013년 5월 미국 심리학회는 hoarding disorder(저장장애, HD)를 별개의 특성을 지닌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규정했다. 미국정신의학회가 작성한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은 HD를 ‘소유물을 축적하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유물이 버려 질 때마다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의 상응하는 느낌’으로 정의한다. DSM-5는 애니멀 호딩을 HD와 관련된 상태로 묘사하고 "많은 수의 동물을 축적하여

1) 애니멀 호딩은 다른 모든 종류의 의도적인 동물학대를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 또한 애니멀 호딩은 호더의 자기 방입과도 관련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외에도 이웃과의 갈등과 공공보건 문제 등을 야기한다.

영양, 위생 및 수의 치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동물을 질병, 굶주림, 사망 등의 열악한 상태 및 환경에 처하게 한 경우”로 정의한다. 그러나 애니멀 호딩은 다른 저장 장애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신과 질환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애니멀 호딩에 관한 통계

-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애니멀 호딩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매년 5000 케이스가 새로이 발생하며 한 케이스 당 50마리, 총 25만 마리의 동물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²⁾ 애니멀 호딩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문화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 세르비아, 일본 등 세계전역에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케이스들이 보고되고 있다.
- 애니멀 호더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여자, 노인, 독신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고양이가 가장 일반적인 호딩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멀 호더는 모든 계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공무원, 교사, 대학 교수, 사회 복지사 및 수의사 등 전문직에서도 발견되는 등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3. 애니멀 호더의 병인(etiology)

애니멀 호더는 정신 건강 문제이며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상 살펴본 애니멀 호더의 특징은 모두 현재의 모습이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애니멀 호더가 되었는지 (혹은 되어 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왜 사람들이 애니멀 호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애니멀 호더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s)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와 이론에 의하면 강박장애모델 이외에도 중독모델(addiction model)과 애착장애 모델(attachment disorder model)³⁾을 비롯하여 편집증(Paranoia), 망상증(Delusional thinking), 우울증(Depression),

2)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애니멀 호딩 보고 숫자는 지난 4년 간 두 배로 늘었다. 보고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특히 Attachment disorders in conjunc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s (인격장애와 관련된 애착장애)

치매 등 기타 정신과적 질환 등이 애니멀 호딩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중독이나 강박 장애 모델은 애니멀 호더가 동물에 가한 학대와 동물이 겪는 고통을 인식할 수 없다는 설명하고 있으며 애착모델은 애니멀 호더가 동물을 사용하여 인간관계를 통해 충족시킬 수없는 개인적인 애착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본다.
- 이외에도 유전적원인, 신경생리학적 원인이나 감염(기생충)도 애니멀 호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보고가 있다.
-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 애니멀 호더가 되는데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특히 트라우마나 질병, 장애,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을 겪은 이후에 수집이나 저장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애니멀 호딩은 다른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100% 재발한다.

4. 애니멀 호더에 대한 정의(definition)

- 애니멀 호딩은 전통적으로 물건저장강박과 비슷하거나 이의 변형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독립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애니멀 호딩이 물건 저장강박과 다른 이유는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 그 악영향이 이웃에게 전염될 수 있고, 해결하는 데 시간, 인력,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을 결국 죽는다⁴⁾는 사실인데 이로 인해 애니멀 호더에게는 더 큰 불안이 생겨서 많은 호더들이 동물을 보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일부는 동물의 죽음을 인정하거나 시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1)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

-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동물 학대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성문화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동물에게 행하는 잔혹행위(animal cruelty)”는 “신체적 학대, 포기, 방치 또는 고문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학대와 방치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둘은 (결과는 같지만)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동물학대 금지법에는 방치(neglect)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애니멀 호딩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리거나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⁴⁾ 물건이나 동물 또는 둘 다를 수집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호더들에게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유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동물은 결국 죽기 때문에 호더가 영원히 통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애니멀 호딩의 경우 법정에서 수동적인 방치로 볼 것인지, 혹은 의도적인 학대로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애니멀 호딩이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어서 호더가 정신 장애의 결과로 인해 동물들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멀 호더는 “고의성 인정”부분 때문에 동물학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⁵⁾

2)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의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정의는 2006년 HARC⁶⁾가 제시한 애니멀 호더를 진단하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이다.
 - (1)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적 위생 환경, 공간, 영양 및 수의적 관리와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2)이 같이 동물이나 가족에게 쾌적한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며, (3)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동물을 수집하거나 축적을 유지하려고 강박적으로 시도하며 (4)사람과 동물에게 생활환경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를 축소화 하려한다.
- HARC는 애니멀 호더를 (1) 힘에 부치는 보호자(overwhelmed caregivers), (2) 구조자(rescuers), (3) 착취자(exploiters)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유형	대화에 의한 설득	법적조치를 통한 위협	법적조치(기소)
착취자	별로 도움 안 됨	갑먹을 것 같지 않음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구조자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됨.	이들의 동기는 구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법적 위협은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법적조치를 통한 위협이 효과가 없을 때만 시행
힘에 부치는 보호자	외부의 지원과 동물의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큼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제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불필요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외에도 중간 애니멀 호딩 단계로 초기 호더와 번식자 호더를 구분하기도 한다.

- 초기 호더는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관리 기준은 충족하지만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 번식자 호더는 동물 쇼나 판매를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데, 사육 환경이 점차 악화되더라

5) 수간이나 동물싸움과 같은 특정한 동물학대 행위는 따로 용어를 쓰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6) 1997년 설립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The 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HARC)는 2006년 애니멀 호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애니멀 호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협력적인 대응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도 번식과 사육을 지속하게 된다.

- 일부 애니멀 호더들은 이러한 단계들의 특성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장애로 인해 더 복잡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애니멀 호딩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동기(원인)를 이해(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화 된 방식으로 모든 애니멀 호딩 사례를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애니멀 호더가 불가피하게 동물을 다시 모으기 시작할 때 낭비되는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5. 애니멀 호딩에 대한 대응

1) Animal Hoarding 관련 법률

-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모든 주가 동물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정하여 동물학대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멀 호딩에 대한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법조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애니멀 호딩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한 주는 일리노이(2001)⁷⁾, 하와이(2008), 로드아일랜드(2017) 세 곳에 불과하고 뉴욕, 뉴저지 등 여러 주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중이다.
- 일리노이 주는 반려동물 호더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⁸⁾한다, 그러나 단지 법적 정의만 내릴 뿐, 애니멀 호딩을 강하게 금지하지는 않으며 애니멀 호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신 상담을 명령한다.
- 하와이는 유일하게 애니멀 호딩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주법을 제정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호더에 대한 심리 상담을 요구하거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2017 로드아일랜드 주는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 사회복지사 협회는 애니멀 호딩은 DSM-5에서 분류한 정신과적 장애이며, 범죄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건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결국 이 법은 법원이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피고의 행동이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했다.
- 이 외에 다른 여러 주에서 애니멀 호딩 법이 제안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자, 정신 건강 또는 동물보호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 2015년 오래건주는 '불법방해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에 동물학대를 포함하여 거주자 또는 사업주가 주의 동물학대 법을 위반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

7) 일리노이 주는 2001년 'Companion Animal Hoarder Act(반려동물호더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에 호딩에 대한 법적 인 정의를 내리고 동물학대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이 정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상담명령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8) "반려동물 호딩"은 (1) 많은 반려 동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 법이 지정한 바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을 제공 하지 못하거나 제공 할 수없는 경우 (3) 반려동물을 심각한 환경에 노출 시키고 (4)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조건이 반려동물 과 주인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2016년 아이다호 주는 판사들에게 애니멀 호더 대한 심리 평가를 명령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 시켰고, 알래스카와 조지아 주 의회는 애니멀 호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동물구조 단체에서 동물들이 받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조지아 주의 “Cost of Animal Care Law(bonding and forfeiture law)는 물 학대(동물싸움이나 애니멀 호딩, 학대 등) 사건에서 압류 된 동물에 대한 돌봄의 재정적 부담이 동물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조지아 카운티에서 동물의 치료와 보호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미리 채권(bond)을 요구한다. 채권을 거절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에 양도하여 입양시킨다.
- 일부 주법은 동물학대자가 반복적으로 학대(방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고발이 허용되며, 이는 애니멀 호딩의 사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정에 수의사가 출석하여 각 개별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증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정에서는 요약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인디애나 주 Fort Wayne 시의 동물보호 조례(Animal Care Ordinances)의 사례처럼 시(city)나 카운티(county) 단위의 구체적인 조례는 애니멀 호딩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법보다 더 빠르게 제정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사법절차 및 규제를 통한 대응

- 전술한 바와 같이 애니멀 호더의 특징 중 하나가 호더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니멀 호딩에 대한 형사 기소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성공적으로 기소(또는 처벌)하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되면 애니멀 호더는 동물 수집을 재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애니멀 호더들의 일반적 행동이 범죄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정신적인 문제때문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이 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법적 개입을 통한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애니멀 호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정에서 판사는 애니멀 호더에게 정신감정이나 상담/치료를 요구하거나 동물소유 금지나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애니멀 호딩을 완화할 수 있다. 애니멀 호딩의 사법적 대응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호더에게 정신건강평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사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정은 애니멀 호딩 상황이 형사 고발이 필요한지 민사구제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민사몰수(Civil forfeiture) 방법을 사용하여 호더에 대한 형사 고발 없이 동물을 압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애니멀

호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본딩법(bond law)⁹⁾은 동물을 압수 한 후 청문회를 통해 적법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제공한다.¹⁰⁾

- 한편 모든 애니멀 호더에게 일체의 동물 소유나 접촉을 금지하는 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신중한 평가와 판단,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애니멀 호더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에 있는 제한된 수의 동물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거나, 돌봄이 가능한 최소한의 숫자의 동물만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동물에 대한 애착이나 충동을 만족시키고 건강한 방법으로 동물을 보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 애니멀 호더에 대한 사법적 접근은 치료적 접근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단지 호더와 동물만의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포함하기 위해 응보적(retributive) 사법절차가 아닌 관련 단체와 사람들이 협력하는 회복적(restorative) 혹은 협력적(collaborative) 사법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정신 치료적 접근

- 애니멀 호딩은 문화, 연령 및 성별을 초월하는 정신장애이다. 그러나 애니멀 호더들은 대부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불쌍한 생명을 돕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의 증상에 대해 강한 부정(denial)을 하기 때문에 개입은 물론 상담이나 치료로의 연결이 어렵다.
- 물건저장장애와 마찬가지로 애니멀 호더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한 치료를 거의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지 혹은 관련 기관들이 애니멀 호딩의 조기 발현(early-onset)을 인지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하거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애니멀 호딩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된 단기치료 혹은 단일 치료방법은 없지만,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CBT), 동기면담(motivational interview) 등의 방법이 효과 있다는 연구결과 있다.

4) 통합적 대응을 위한 협력 확보

- 애니멀 호딩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안은 “cooperative targeted approach”이다. 즉 여러 관련기관(stakeholders)¹¹⁾간의 상당한 수준의 협력

9) 법률 상, 사람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식적인 서면 계약. 이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몰수당함.

10)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개인, 회사, 혹은 마을이 애니멀 호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텍사스 지방 검사 협회는 민사적으로 동물을 더 빨리 몰수 할 수 있게 하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을 게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멀 호더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

과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동물보호 단체는 동물의 안전에, 사회복지사는 호더의 안전에, 사법체계는 법률 집행과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물을 몰수했을 때 호더가 느끼는 절망감을 걱정해서 사회복지사는 동물 압수를 반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또한 기관 간에 충돌하는 임무와 역할, 공동 합의서 부족, 누가 행동해야하는지, 언제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에 더하여 협력 기간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개입과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력기관들이 개입 목표에 대한 합의에 근거하여 사전에 잘 준비된 계획이 필요하다.

- 다음은 여러 관련기관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이다.

- 효과적인 용어 사용
- 애니멀 호딩 사례의 실제 비용에 대한 이해와 분담
- 기관별 개입목표(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를 수용
- 개입과정에서 정확한 절차와 순서에 대한 이해
- 장기적 접근 전략에 대한 이해와 실행
- 호더의 인권보호 등 윤리적 문제와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 MOU 작성

5) Multidisciplinary teams(MDTs)과 Task Force

- 여러 기관들이 애니멀 호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크게 Multidisciplinary teams(MDTs)과 Task Force가 있다.
- MDTs는 애니멀 호딩과 관련된 특별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그 사례를 담당해온 기존의 기관이나 팀에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단체나 개인, 혹은 법률 집행기관을 추가 투입하여 애니멀 호딩 사례를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 MDTs가 개별 특정 사례를 위한 일회적 대응 방식이라면 Task Force는 상시적으로 애니멀 호딩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자원을 제공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애니멀 호딩 태스크 포스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 호딩 태스크 포스에 애니멀 호딩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6) 미국 뉴욕시의 사례

- 뉴욕시는 애니멀 호딩을 인간복지, 환경, 건강, 동물복지 및 재산 문제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the Model Hoarding Intervention”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뉴욕 경찰국(NYPD), 뉴욕 소방서(NYFD), 성인보호 서비스

11) 동물보호단체, 사법기관, 보건 및 정신보건 기관, 사회복지 기관, 법 집행기관, 법률 지원기관 등

스, 노화 방지 및 동물 관리국 (NYC), 동물학대방지단체(ASPCA), 보건 및 정신 위생국, 건축 및 시설국, 지역 사회위원회, 뉴욕시 주택 당국, 긴급 관리 사무소 등을 비롯하여 노인 및 기타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다루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 포함된다. 뉴욕 시 애니멀 호딩 개입 모델은 예방단계¹²⁾, 법적 개입 단계¹³⁾, 응급단계¹⁴⁾로 나뉘어 호더의 행동, 사육 조건, 지역사회 영향 및 재발 등과 관련된 사항 다룬다. 2003년 구성되었던 뉴욕시 애니멀 호딩 태스크 포스(NYC Animal Task Force)는 해산되었고 현재 ASPCA가 “mayor's alliance for NYC's animals¹⁵⁾”를 통해 사회복지사, 수의학 전문가, 동물 행동전문가, 동물보호법 집행 기관 및 광범위한 사회복지 및 동물보호 기관과 협력하여 애니멀 호딩에 조기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¹⁶⁾

- 이 같은 뉴욕시의 접근 방식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많은 애니멀 호딩 사례에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애니멀 호딩이 단순한 동물보호(관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복지, 동물 복지 및 지역사회 복지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6. 국내 애니멀 호딩 문제 적용을 위한 제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애니멀 호딩에 대응하는 쉬운 방법은 없다. 이는 사법체계, 행정기관,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 및 동물복지 영역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애니멀 호딩에 대한 개념(정의) 확립. 인식 및 교육 확대
- 관련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보완
- 법적 체계 강화(특별사법경찰, 동물보호감시원 등 공권력 개입 필요)
- 애니멀 호딩 관련 자료수집, 조사, 연구
- pilot program(MDTs) 시행 및 TF 구성
- stakeholder 간 상호 교육, 네트워크, 협력 강화
- 호더에 대한 지원, 상담,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구조된 동물을 치료/보호 하고 입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12) 중성화 수술을 통한 번식 중단, 청소를 통한 환경 개선, 개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의뢰 및 연결, 추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13) 동물 학대, 방지, 퇴거, 후견인 문제를 포함하여 동물복지 단체나 전문단체를 통한 동물 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개입원인 평가와 같은 법적 개입

14) 개인 및 공중보건 문제로 인해 개인 및 동물을 구조하고 격리하기 위한 대응 조치와 같은 응급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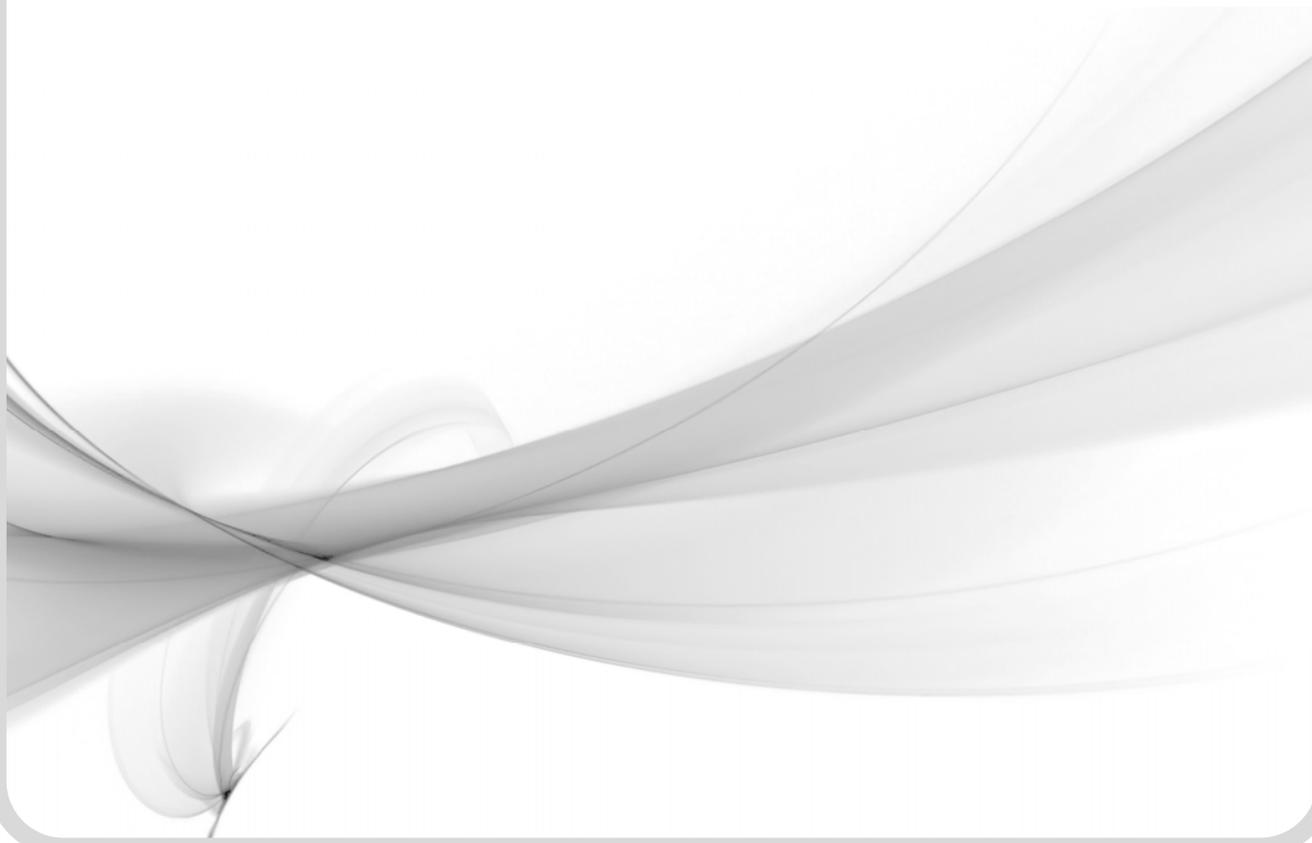
15) 뉴욕시 소재 150 개 이상의 동물구조 및 보호소 등과 협력하여 유기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반려인을 비롯한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특히 웹사이트 내에 사회복지사가 위기에 처한 반려인을 도울 수 있도록 on-line toolkit for social workers to help pet owners on crisis를 제공한다.

16)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100건 이상의 애니멀 호딩 사례에 대응했다.

· 발제 03 ·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서울시의 대책

윤민 서울시 동물복지과 주무관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 SEŌUL · U

동물 공존도시, 서울

사각지대 동물을 위한 향후 과제

—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I · SEŌUL · U



1. 동물복지동향, 그 간의 성과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1 동물복지동향, 그 간의 성과



서울시 그간 추진 성과

1 전국 최초 동물보호 부서 신설 (12. 9월)
 및 지자체 최초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14. 5월)



5개분야

반려동물·유기동물·길고양이·사육동물·시민참여



19개 사업

추진 완료 12개 추진 중 7개

2 반려견놀이터(4개소) 등
 동물복지시설 확대로 시민편의 제공

- 반려견 놀이터 일평균 이용실적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조성



어린이 대공원 월드컵 공원
 보라매공원 등 4개소 설치

> 이상행동 교정 교육
 > 반려견 돌봄문화 교육

3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등
 유기동물 선진정책 추진

- 서울복지지원센터 건립
- 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



4 길고양이 증성화사업 확대 등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



01 동물복지동향, 그 간의 성과



추진 문제점

유기·유실동물 8천 2백 마리 구조,
 그 중 1/4이 안락사



미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



유기동물 입양 반대이유



반려동물 4년 사이 20만 증가



턱없이 부족한
 반려견 놀이터

전국 반려견 중 1/6이
 서울 내 양육 중이나 반려견 놀이터는
 단 4 곳에 불과

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2. 동물 공존도시 서울, 주요 과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2 동물 공존도시 서울, 주요 과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서울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19년~2023년



01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02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03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공동체

단위과제 (27개)

- 1 내장형 동물등록칩 등록 지원
- 2 유기동물 응급이송치료센터 운영
- 3 가정 내 임시보호 및 인 관 입양활동 전개
- 4 직업 입양센터 설치 및 유기동물 보호수준 강화
- 5 유기동물 입양시민 안심보호 지원
- 6 **도시재개발지역 내 동물보호 활동**
- 7 민관 합동 동물 학대감시체계 구축
- 8 동물관련업소 지도·감독 강화
- 9 동물카메라 감시 모니터링 강화
- 10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 1 반려견 놀이터 서울 전역 확충
- 2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 3 반려동물 돌봄문화 교육강화
- 4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 5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 6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뢰서비스 지원**
- 7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 8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교육동물원으로 개선
- 9 서울동물원의 동물복지 환경개선
- 10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 1 동물보호교육교사 양성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 2 소외계층 동물매개활동 강화
- 3 동물정책청년넷 운영
- 4 동물보호시민봉사단 운영
- 5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확대
- 6 동물복지 축산물 공공급식 확대
- 7 동물의 날 문화행사 추진



02 동물 공존도시 서울, 주요 과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서울

동물 공존도시 서울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24시간 응급치료도

서울, 만원 내면 '반려견 내장 칩' 심어준다

반려견 20만여 마리에 달하는 서울의 반려동물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만 10만여 마리다. 서울시는 반려견 10만여 마리에 달하는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만 10만여 마리다. 서울시는 반려견 10만여 마리에 달하는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만 10만여 마리다.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 지원

서울시는 유기견 입양을 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유기견 입양을 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유기견 입양을 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보험료 지원

서울시는 유기견 입양을 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유기견 입양을 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유기견 입양을 하면 1년간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

'뱃뱃족' 표심잡는 박원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뱃뱃족'을 표심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뱃뱃족'을 표심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뱃뱃족'을 표심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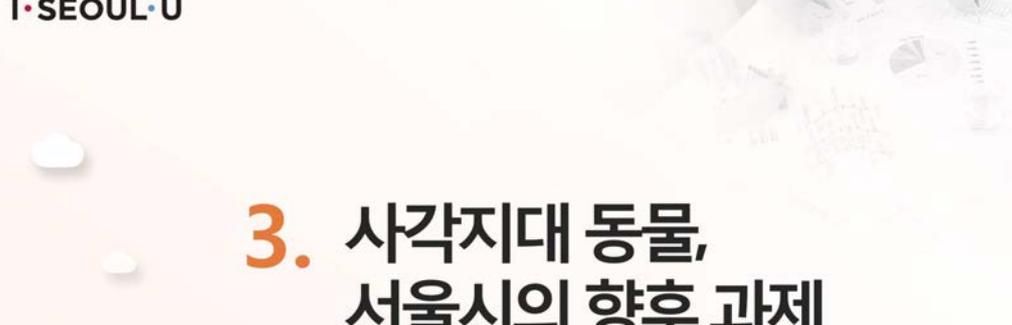
서울시, 동물복지종합계획

서울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서울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서울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01:30분 중앙

3. 사각지대 동물, 서울시의 향후 과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01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 02 애니멀 호더 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01.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년 추진실적

2019년 취약계층의 구분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 재건축 지구 	
	<p>★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추진(2019. 9~12월) 대상 : 취약계층 반려동물 600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특거노인 등) 내용 :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예르사항 조사</p>	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멀 호더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 연도별 추진목표('23년까지 3천마리 확대)

동물돌봄 이동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상담·홍보활동 (2020년 1월 제작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및 동물유기 우려지역 동물 의료서비스 		

01.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체계 지원(마포, 서대문, 은평)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복지기관 동물보호단체 지역정신건강센터 	<div style="border: 2px solid green;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돌봄 네트워크 구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서비스 동물의료 지원 펫티켓 교육
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멀 호더 등 돌봄지원이 필요한 시민 			

2020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

관련조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보호조례 개정(입법예고 중) 도시정비조례 개정(준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경비 등 지원근거 마련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 기존 건축물 철거 30일 전 동물보호과 통보, 동물보호활동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에 협조 반려동물 유기예방(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및 이주대책 등 추진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매뉴얼 제작 및 모델사업 추진 	

02 애니멀 호더 방지를 위한 향후과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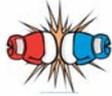


동물복지 서비스

취약계층 반려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

중앙부처 적극적인 국비 예산투입 건의

사람복지



동물복지

취약계층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여기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까지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복지를 챙겨준다는 사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걸 버려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연계사업 확대 건의
예) 가족 살처분 매몰참여자, 농가주 등 심리지원 사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 트라우마 예방교육, 대처방법 상담, 검사(평가) 등

동물의 문제??? 사람의 문제???

동물학대 감시강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동물학대 -> 동물보호센터(구조, 보호) -> 보호비용(청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2019. 5. 16.개정) => 사육포기 유도 목적

★ 적용의 사례?? 신고는 매년 증가

- 동물학대신고 : 2019년 9월 111건, 2018년 218건,
2017년 181건, 2016년 15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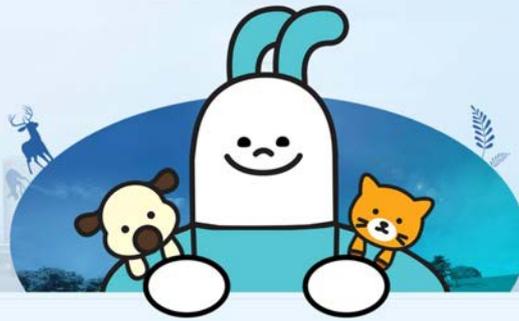
반려동물 사육두수 제한?
설 동물보호소 및 시민구조자 관리?
직영 보호시설 확충?
동물보호 감시인력 확보?

민관 협력강화 => 애니멀 호더 방지

1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 SEŌUL · U



“ 감사합니다 ”

동물 공존도시 서울 |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공동체



• 토론 01 •

토론

좌장 : 함태성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영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 박 지 영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요즘 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애니멀 호딩의 문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상생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사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 영역인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요즘 들어 '사례관리'라고 하는 실천방법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람마다 충족되어야 할 문제와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 되어가면서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어떤 한 기관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 문제해결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조방식을 '사례관리'라고 칭하고 있다. 최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의 구현을 기치로 한 공공사례관리의 확대에 앞으로 사례관리실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추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공사례관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원에 방점을 둔 통합사례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애니멀 호딩 예방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합사례관리란?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찾아가는 상담과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욕구와 자원의 통합 맞춤 서비스
-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의 협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기관, 지자체, 주민 간 원활한 소통)
- 공식적 자원/비공식적 사회자원을 대상자와 연결하는 과정

○ 현재 통합사례관리체계와 애니멀 호더 문제

- 사례관리 대상사례 중에서도 매우 취약한 대상자들에게서 애니멀 호더의 문제 심각성
- 한 사례 안에서도 가장 취약한 가족구성원(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의 문제로 귀착 경향
- 의도적 동물학대보다는 사회적 소외로 인한 정서적 유대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음
- 대다수의 사례관리자(통합사례관리사)는 반려동물의 정서적 매개체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일괄적으로 강제 분리조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구청에 유기동물로 신고접수)
- 보호소로 보내진 동물들은 거의 안락사 됨. 그러나 사례관리자는 신고접수 이후의 과정과 조치에 대해서는 몰이해
- 분리조치 이후 대상자의 호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례관리자는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통상적임
- 행정적 가이드라인의 부재 (행정 칸막이: 희망지원팀 vs. 경제진흥/일자리창출)

○ 통합사례관리체계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보건복지부, 『2019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욕구 및 위기도 조사단계>

- 욕구영역별 질문 10가지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직업,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 애니멀 호더 대상자 욕구 조사에서는 반드시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의 욕구차원에서 애니멀 호더 문제를 검토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생활환경의 욕구차원의 접근으로만 한정 (예, 환경개선)
-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서 예로 제시할 필요성 있음

<사례회의 개최 단계>

-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개최
- 읍면동 차원의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애니멀 호더 대상자의 욕구의 확인 → 통합사례회의

에서 주요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을 조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해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와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해결중심 회의 진행(사회복지, 학계, 의료, 경찰, 임상심리, 법률전문가, 가족치료 전문가 이외 동물권 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를 pool에 포함시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단계〉

- 지역 내 공식적·비공식적 복지자원을 대상자의 욕구와 매칭시킴
- 동물복지 관련 단체를 복지자원으로 가용화 (중성화, 반려동물관리교육, 입양 및 보호)

공공영역 통합사례관리체계에서 취약계층 애니멀 호딩의 문제를 다루어봄으로써 민간의 지역복지기관들의 사례관리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약계층 발굴 및 원조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토론 02 •

토론

송민경 석관동 주민센터 주무관



MEMO

• 토론 03 •

토론

김수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쉼 기획실장



고양희씨 상담 현황

1. 대상자 : 고양희(가명)
2. 성별/연령 : F/ 59세
3. 주소 : 독산동
4. 정신건강문제종류 : 망상장애, 강박장애
5. 주요조치 : 찾아가는 상담
6. 정보취득 경로(의뢰 경로) : 지역경제과 담당 주무관에 의해 의뢰됨
7. 의뢰 사유 : 공공장소에서 비둘기 먹이 주는 것으로 인한 민원
20평정도 빌라 집에서 80마리 넘는 (고양이, 비둘기, 개 등)동물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이웃주민들과의 불화
8. 상담계획 :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6월 13일부터 매주 1회기 상담하여 현재 12회기 진행 중임)
9. 상담현황 :
 - 상담사 : 상담사 2명(김00, 이00)(찾아가는 상담 12회기 진행 중임)
 - 참석자는 회기마다 변화 있음
 - ct 상태 : 가산동에서 일하고 있음. 사람들이 고양이 밥, 비둘기 밥을 주면 또라이라고 욕하면 ct가 처음에는 “오빠 미안해, 오늘만 주고 안줄게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공격이 심해지면서 ct도 행동이 폭력적으로 되었다.
우리집에 가보면 고양이들이 소리도 안내고 조용한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구청과 경찰들이 번갈아가면서 찾아오고 주민들이 내가 폭력을 가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담당자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경찰관들이 안다고 하면서 이해해 주었다.
겨울에 추울까봐 걱정하고 여름에 더울까봐 걱정하는 나를 보면 동물에게 미친 것이 맞다.
TV에 11번 출현했다고 하면서 PD가 정말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양이를 키운 게 12년째인데 처음엔 한마리만 키운 것으로 시작해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내 목을 누르고 팔을 비틀고 할 때마다 두려웠지만 고양이들을 생각하고 버티었다. 00엄마는 신랑하고 다니니까 나처럼 폭행을 당하지 않는데 혼자라고 무시하는 인간들 때문에 더 괴팍하고 사나워졌다.
 - 집 안 환경 : 고양이들이 장롱 위, 냉장고 위, 가스레인지 위, 베란다에 있었고 100마리

는 되어 보였다. 카라직원이 피부질환을 가진 고양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건강한 고양이가 걱정된다고 함. 옥상에 고양이 집과, 이불이 쌓여 있음. 날개 한쪽이 없는 비둘기, 발목이 묶여 상처 난 비둘기가 집에 있음. 고양희씨는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심리학적 원인분석 >

* 의존적, 유아적 성격유형으로 남편과 친정엄마가 사망함으로 오는 상실감과 우울감이 버려진 동물로 투사되면서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까지 자신이 동물을 구출하고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행동하며 멈추지 못함.

<상담을 통한 치료학적 접근방법 및 향후방향>

자신이 돌봄을 받고 싶은 부분을 정서적 측면에서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하도록 돕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약물복용을 병행하면서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환경적으로는 공공근로를 하도록 도와서 고양이에게 집중하는 에너지를 사회 속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분을 일부 돕도록 한다.

• 토론 04 •

토론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별첨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권행동 **카라**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성민

I.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19년 04월 ~ 2019년 10월
2. 조사대상 : 2019년 서울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 신청자 가운데 취약가구 참여 대상자
3. 조사방법 : 1:1 서베이조사
4. 분석방법
 - 1) 자료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을 실시
 - 2) 엑셀통계를 통한 다중응답 교차분석 실시

II. 자료 분석 결과

1. 빈도 및 기술통계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39명(25.8%), 여자 112명(74.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50대 33명(22.1%), 20대 26명(17.4%), 40대 25명(16.8%), 30대 21명(14.1%), 10대 이하가 19명(12.8%), 60대 이상 25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분포가 20대에서 50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인도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북부가 52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 서부(31.1%), 서울 동부 31명(20.5%), 서울 남부 21명(13.9%)의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별 빈도를 확인해보면, 노원구가 30명(1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은평구와 강서구가 각각 13명(8.6%), 강남구 10명(6.6%), 강북구 9명(6.0%), 중랑구 8명(5.3%), 용산구 7명(4.6%), 관악구 · 동대문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성북구가 각각 6명(4.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금천구 · 도봉구가 각각 5명(3.3%), 구로구 · 성동구가 각각 4명(2.6%), 광진구 3명(2.0%), 동작구 · 송파구 · 양천구 · 종로구가 각각 2명(1.3%), 서초구 · 중구가 각각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형태의 경우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이 69명(4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파트 63명(42.0%), 단독주택 18명(12.0%)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가구형태의 경우 2세대가 78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인세대(혼자 거주)가 46명(30.7%), 1세대(부부)가 12명(8.0%), 3세대와 기타세대가 각각 7명(4.7%)의 비율을 보였다.
- 소득구간으로는 100만원 미만인 40명(3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이 32명(25.8%)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100~150만원 미만인 31명(25.0%), 150~200만원 미만인 21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 동거가족의 수의 경우 3명이 32명(30.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명이 26명(24.5%), 1명이 24명(22.6%), 4명이 19명(17.9%), 5명이 5명(4.7%)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수의 경우 1마리가 105명(69.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마리가 41명(27.2%), 3마리 이상이 5명(3.4%)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연령의 경우 1~2년 미만인 39명(2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3~5년 미만인 37명(22.8%), 1년 미만인 30명(18.5%),

5~10년 미만인 28명(17.3%), 10년 이상이 4명(2.5%)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지출 비용의 경우 50,000~100,000원 미만이 63명(4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40명(27.8%), 30,000~50,000원 미만과 200,000원 이상이 각각 14명(9.7%), 30,000원 미만이 1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개’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상이 105명(6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마리가 41명(27.2%), 3마리 이상이 5명(3.4%)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성비로는 암컷이 98마리(63.6%), 수컷이 56마리(3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인 ‘개’의 연령으로는 3~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2명(23.9%)으로 가장 많고, 1~2년 미만이 30명(22.4%), 1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각각 25명(18.7%), 2~3년 미만이 18명(13.4%), 10년 이상이 4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지출비용을 확인한 결과 50,000~100,000원 미만이 62명(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48명(31.4%), 30,000~50,000원 미만이 17명(11.1%), 200,000원 이상이 14명(9.2%), 10,000~30,000원미만이 10명(6.5%), 10,000원 미만이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상이 21명(7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2마리가 6명(20.7%), 3마리 이상이 2명(6.9%)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성비로는 암컷이 21마리(63.6%), 수컷이 12마리(36.4%)의 비율을 보인다. 반려동물 연령의 경우 1~2년 미만이 9명(3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년 미만이 5명(17.9%), 3~5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5명(17.9%), 10년 이상이 4명(14.3%), 5~10년 미만이 3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지출비용을 확인한 결과 50,000~100,000원 미만이 19명(61.3%)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00,000원 이상이 7명(22.6%), 10,000~30,000원 미만이 3명(9.7%), 100,000~200,000원 미만 2명(6.5%)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중 반려동물을 과거에 키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있다’가 76명(51.0%), ‘없다’가 73명(49.0%)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운 기간을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이 22명(3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11명(19.0%), 2~3년 미만이 9명(15.5%), 1~2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각각 7명(12.1%), 1년 미만이 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여성	112	74.2
	남성	39	25.8
	총계	151	100.0
연령대	10대 이하	19	12.8
	20대	26	17.4
	30대	21	14.1
	40대	25	16.8
	50대	33	22.1
	60대 이상	25	16.8
	총계	149	100.0
거주권역	서울 동부	31	20.5
	서울 서부	47	31.1
	서울 남부	21	13.9
	서울 북부	52	34.4
	총계	151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거주지역	강남구	10	6.6
	강북구	9	6.0
	강서구	13	8.6
	관악구	6	4.0
	광진구	3	2.0
	구로구	4	2.6
	금천구	5	3.3
	노원구	30	19.9
	도봉구	5	3.3
	동대문구	6	4.0
	동작구	2	1.3
	마포구	6	4.0
	서대문구	6	4.0
	서초구	1	0.7
	성동구	4	2.6
	성북구	6	4.0
	송파구	2	1.3
	양천구	2	1.3
	용산구	7	4.6
	은평구	13	8.6
	종로구	2	1.3
중구	1	.7	
중랑구	8	5.3	
	총계	151	100.0
주택형태	단독주택	18	12.0
	아파트	63	42.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69	46.0
	총계	150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46	30.7
	1세대(부부)	12	8.0
	2세대	78	52.0
	3세대	7	4.7
	기타	7	4.7
	총계	150	100.0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40	32.3
	100~150만원 미만	31	25.0
	150~200만원 미만	21	16.9
	200만원이상	32	25.8
	총계	124	100.0
동거가족 수	1명	24	22.6
	2명	26	24.5
	3명	32	30.2
	4명	19	17.9
	5명	5	4.7
	총계	106	100.0
반려동물 수	1마리	105	69.5
	2마리	41	27.2
	3마리 이상	5	3.4
	총계	151	100.0
반려동물 성별	암	119	63.6
	수	68	36.4
	총계	187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반려동물 연령	1년 미만	30	18.5
	1~2년 미만	39	24.1
	2~3년 미만	24	14.8
	3~5년 미만	37	22.8
	5~10년 미만	28	17.3
	10년 이상	4	2.5
	총계	162	100.0
반려동물 지출비용	30,000원 미만	13	9.0
	30,000~50,000원 미만	14	9.7
	50,000~100,000원 미만	63	43.8
	100,000~200,000원 미만	40	27.8
	200,000원 이상	14	9.7
	총계	144	100.0
반려동물 수(개)	1마리	105	69.5
	2마리	41	27.2
	3마리 이상	5	3.4
	총계	133	100.0
반려동물 성별(개)	암	98	63.6
	수	56	36.4
	총계	154	100.0
반려동물 연령(개)	1년 미만	25	18.7
	1~2년 미만	30	22.4
	2~3년 미만	18	13.4
	3~5년 미만	32	23.9
	5~10년 미만	25	18.7
	10년 이상	4	3.0
	총계	134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반려동물 지출 비용(개)	10,000원 미만	2	1.3
	10,000~30,000원 미만	10	6.5
	30,000~50,000원 미만	17	11.1
	50,000~100,000원 미만	62	40.5
	100,000~200,000원 미만	48	31.4
	200,000원 이상	14	9.2
	총계	153	100.0
반려동물 수(고양이)	1마리	21	72.4
	2마리	6	20.7
	3마리 이상	2	6.9
	총계	29	100.0
반려동물 성별 (고양이)	암	21	63.6
	수	12	36.4
	총계	33	100.0
반려동물 연령 (고양이)	1년 미만	5	17.9
	1~2년 미만	9	32.1
	2~3년 미만	6	21.4
	3~5년 미만	5	17.9
	5~10년 미만	3	10.7
	10년 이상	4	14.3
	총계	28	100.0
반려동물 지출 비용 (고양이)	10,000원 미만	0	0.0
	10,000~30,000원 미만	3	9.7
	30,000~50,000원 미만	0	0.0
	50,000~100,000원 미만	19	61.3
	100,000~200,000원 미만	2	6.5
	200,000원 이상	7	22.6
	총계	31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키운경험	있다	76	51.0
	없다	73	49.0
	총계	149	100
키운기간	1년 미만	2	3.4
	1~2년 미만	7	12.1
	2~3년 미만	9	15.5
	3~5년 미만	7	12.1
	5~10년 미만	11	19.0
	10년 이상	22	37.9
	총계	58	100.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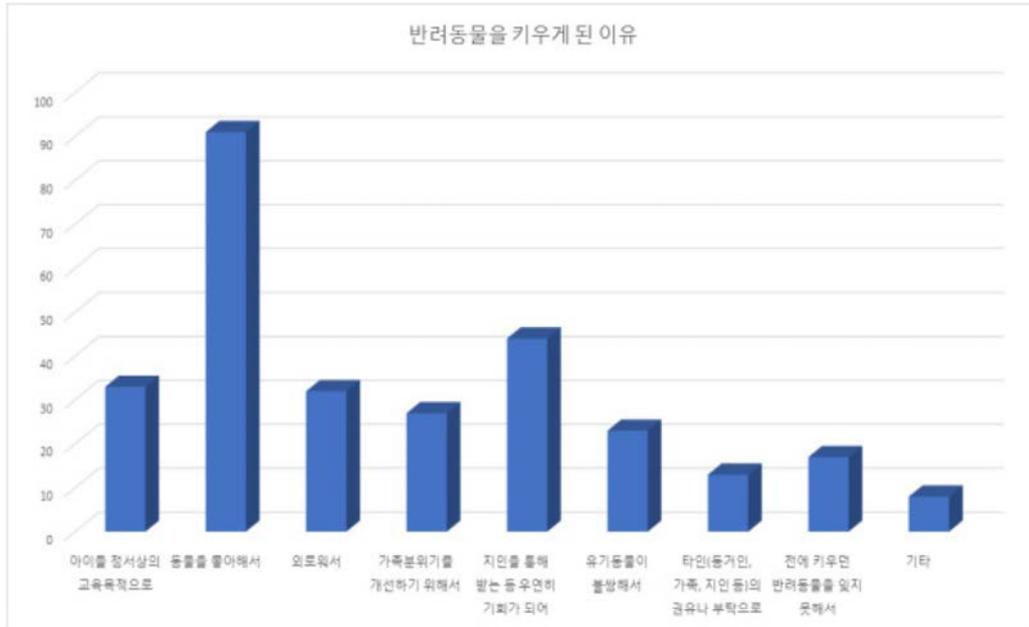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을 확인한 결과, 연령의 경우 평균 41.9세(SD=20.034)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평균 1,328,000원(SD=745,000)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의 수는 평균 2.6명(SD=1.162)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수는 전체 평균 1.58(SD=2.079)마리로 나타났으며, 개의 경우 평균 1.47(SD=2.363)마리로 나타났으며, 고양이의 경우 1.69(SD=1.795)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연령의 경우 평균 2.98세(SD=2.636)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지출비용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90,069원(SD=100,345)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에 관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7.6년(SD=6.245)으로 나타났다.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구분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연령	41.9	20.034	1.00	91.00
소득	1,328,000	740,500	100,000	4,000,000
동거가족 수	2.60	1.162	1	5
반려동물 수	1.58	2.079	1	36
반려동물 수(개)	1.47	2.363	1	28
반려동물 수(고양이)	1.69	1.795	1	8
반려동물 연령	2.98	2.636	.1	13.0
한 마리당 지출비용	90,069	100,345	3,000	1,000,000
키운 기간(과거)	7.6	6.245	1	20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및 경로

(1)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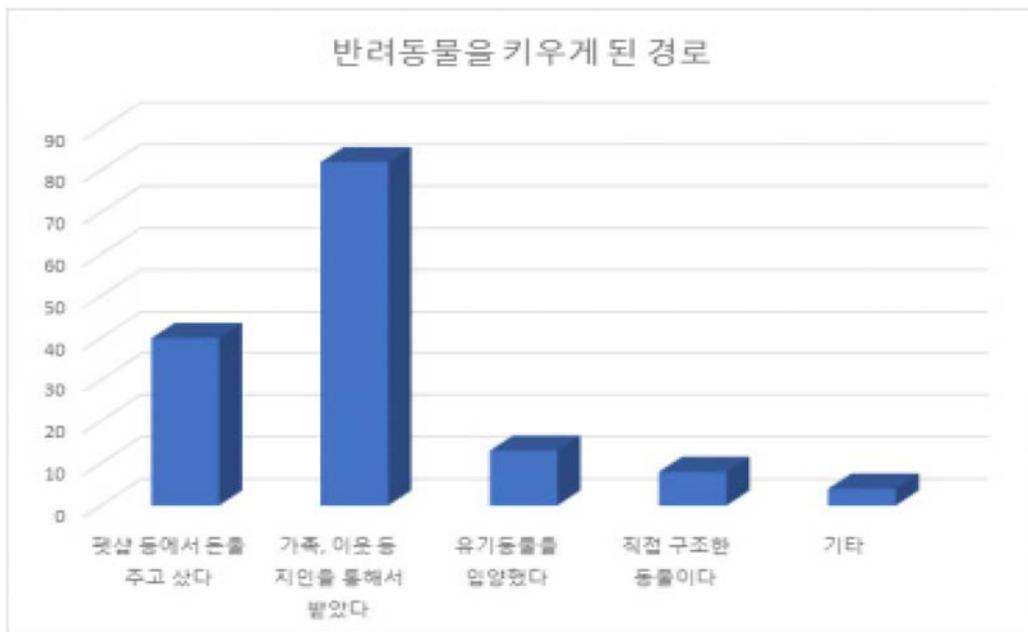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조사자가 91명(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조사자도 44명(15.3%)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33명(11.5%),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32명(11.1%),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명(9.4%),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23명(8.0%),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17명(5.9%),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13명(4.5%), 기타의견이 8명(2.8%)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가족분양, 가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구조했다, 언니가 아플 때 키웠다, 입양파티 갔다가, 자녀가 원해서, 집 앞에 버리고 가서 키우게 되었다, 치매가 있어서 개와 대화 나누고 하려고 키우게 되었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33	11.5
	동물을 좋아해서	91	31.6
	외로워서	32	11.1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27	9.4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44	15.3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23	8.0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13	4.5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7	5.9
	기타	8	2.8
총계		288	100.0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를 확인한 결과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가 82명(55.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경우가 40명(27.2%),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13명(8.8%),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가 8명(5.4%), ‘기타의견’이 4명(2.7%)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 관한 내용으로는 매입구조, 모란시장에서 구입, 유기견의 새끼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40	27.2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82	55.8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13	8.8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8	5.4
	기타	4	2.7
	총계	147	100.0

3) 반려동물 특성

(1)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 반려동물 중 키우는 개의 품종을 확인한 결과 말티즈가 45마리(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믹스가 35마리(20.8%)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푸들이 32마리(19.0%), 치와와 8마리(4.8%), 포메리안 7마리(4.2%), 시츄·진돗개가 각각 5마리(3.0%), 품피츠 4마리(2.4%), 스피츠·시바·요크셔테리어·코커스파니엘 등이 각각 3마리(1.8%), 골든리트리버·닥스훈트·보더콜리·비송 프리제·샤페이·퍼그가 각각 2마리(1.2%), 미니어처핀서·비글·슈нау저가 각각 1마리(0.6%)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을 확인한 결과 코리안숏헤어가 15마리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러시안블루가 3마리(10.7%), 터키쉬앙고라·노르웨이숲이 각각 2마리(7.1%), 먼치킨 숏레그·뱅갈·브리 티쉬 숏헤어·스코티쉬 폴드·스코티쉬 스트레이트·페르시안이 각각 1마 리(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구분		빈도	퍼센트
키우는 개의 품종	골든리트리버	2	1.2
	닥스훈트	2	1.2
	말티즈	45	26.8
	미니어처 핀셔	1	0.6
	보더콜리	2	1.2
	비글	1	0.6
	비송 프리제	2	1.2
	샤페이	2	1.2
	슈нау저	1	0.6
	스피츠	3	1.8
	시바	3	1.8
	시츄	5	3.0
	요크셔테리어	3	1.8
	진돗개	5	3.0
	치와와	8	4.8

	구분	빈도	퍼센트
키우는 개의 품종	코커스파니엘	3	1.8
	퍼그	2	1.2
	포메마리안	7	4.2
	폼피츠	4	2.4
	푸들	32	19.0
	믹스	35	20.8
	총계	168	100.0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	노르웨이숲	2	7.1
	러시안 블루	3	10.7
	먼치킨 숏레그	1	3.6
	뱅갈	1	3.6
	브리티쉬 숏헤어	1	3.6
	스코티쉬 폴드	1	3.6
	스코티쉬스트레이트	1	3.6
	코리안숏헤어	15	53.5
	터키쉬앙고라	2	7.1
	페르시안	1	3.6
	총계	28	100.0

(2) 키우는 반려동물의 특성

-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및 현재병력을 확인한 결과, 과거병력이 ‘있다’ 라는 응답자가 26명(19.5%), ‘없다’ 라는 응답자가 107명(80.5%)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병력에 관한 응답으로 ‘있다’ 라고 한 경우가 17명(13.5%), ‘없다’ 라는 응답자가 109명(86.5%)으로 나타났다. 과거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눈염증, 귀염증, 심장사사충, 홍역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재 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심장사사충, 방광염, 관절염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응답으로는 ‘건, 습사료’ 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1명(96.1%)으로 거의 대다수이고, ‘잔반’ 을 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명(1.7%)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도 4명(2.2%)이 응답하였다.
- 반려동물의 등록에 관한 응답으로는 미등록 94명(56.3%)이고, 등록이 73명(43.7%)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이 45명(65.2%), 인식형이 24명(34.8%)으로 응답하였다.

〈표〉 반려동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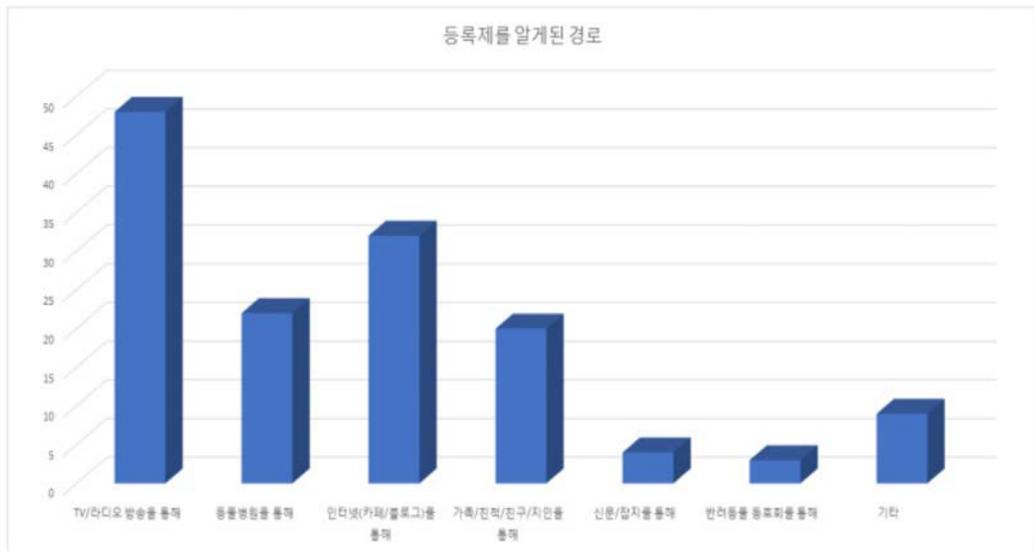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없다	107	80.5
	있다	26	19.5
	총계	133	100.0
반려동물의 현재병력	없다	109	86.5
	있다	17	13.5
	총계	126	100.0
반려동물의 급식	건, 습사료	171	96.1
	잔반	3	1.7
	기타	4	2.2
	총계	178	100.0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등록	73	43.7
	미등록	94	56.3
	총계	167	100.0

구분		N	퍼센트
동물등록 방법	인식형	24	34.8
	내장형	45	65.2
	총계	69	100.0

4)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조사

(1) 반려동물 등록현황 및 알게 된 경로

□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예’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9명(92.7%), ‘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명(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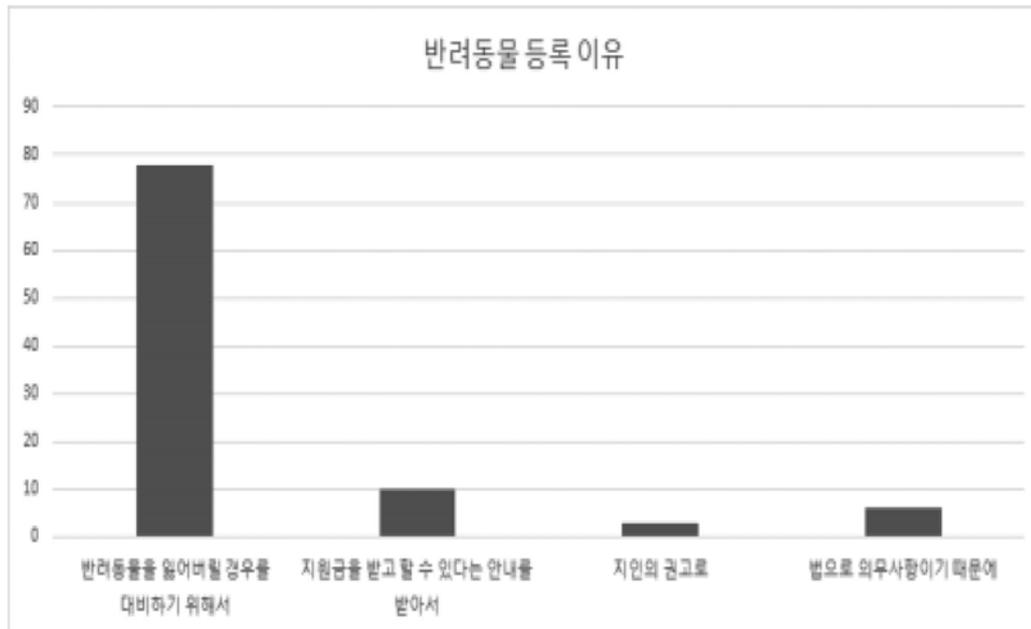


□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TV/라디오 방송을 통해서가 48명(3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카페/블로그)을 통해서도 32명(23.2%)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동물병원을 통해서가 22명(15.9%),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서가 20명(14.5%), 신문/잡지를 통해서가 4명(2.9%),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서가 3명(2.2%)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도 9명(6.5%)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아파트 게시물(5명), 구청·주민센터를 통해서(3명), 인스타그램(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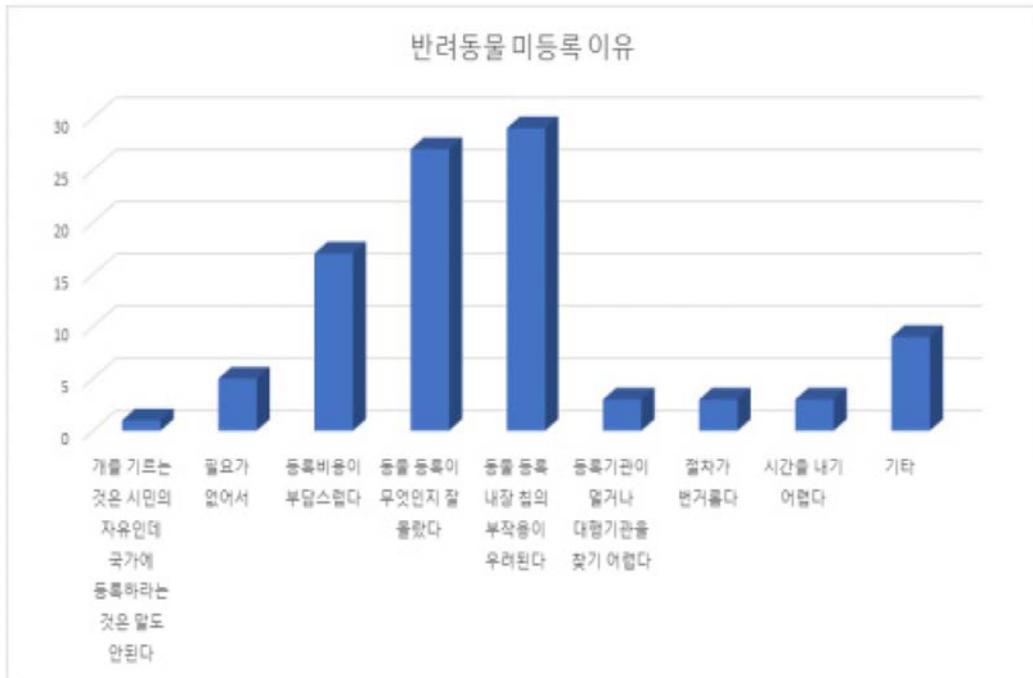
<표>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등록제유무	예	139	92.7
	아니오	11	7.3
	총계	150	100.0
등록제 알게 된 경로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48	34.8
	동물병원을 통해	22	15.9
	인터넷(카페/블로그)를 통해	32	23.2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	20	14.5
	신문/잡지를 통해	4	2.9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3	2.2
	기타	9	6.5
	총계	138	100.0

(2)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 반려동물을 등록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78명(8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가 10명(10.3%),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했다가 6명(6.2%), 지인의 권고로 등록했다가 3명(3.1%)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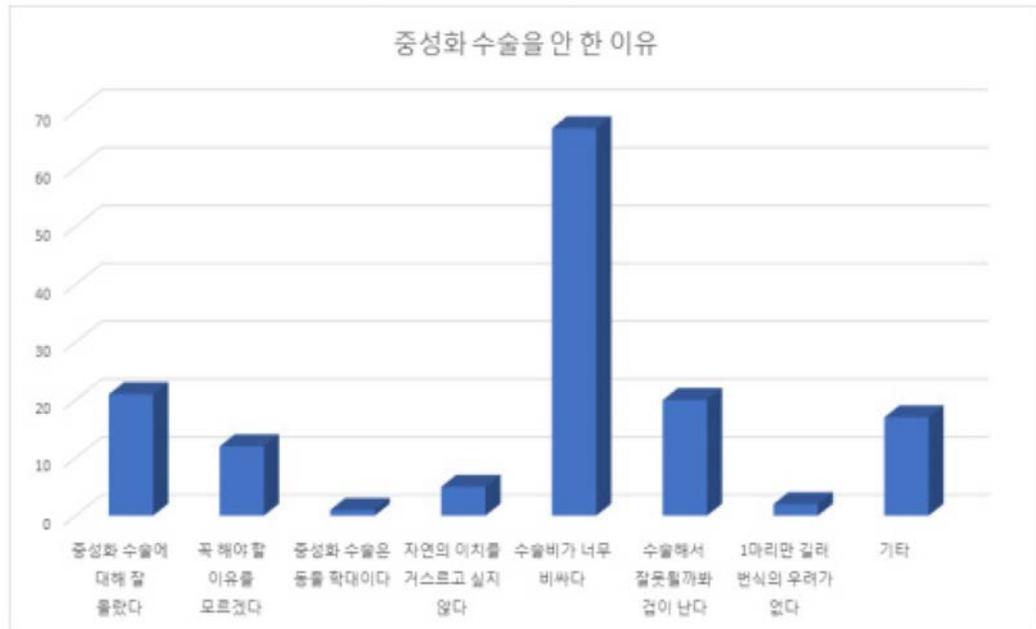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등록 안 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가 29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물 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응답도 27명(27.8%)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가 17명(17.5%), 필요가 없어서가 5명(5.2%),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절차가 번거롭다·시간을 내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각각 3명(3.1%),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가 1명(1.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도 9명(9.3%)의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의견으로는 고양이라, 새끼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등록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78	80.4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10	10.3
	지인의 권고로	3	3.1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6	6.2
	총계	97	100.0
반려동물을 등록 안한 이유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1	1.0
	필요가 없어서	5	5.2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	17	17.5
	동물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27	27.8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29	29.9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	3	3.1
	절차가 번거롭다	3	3.1
	시간을 내기 어렵다	3	3.1
	기타	9	9.3
	총계	97	100.0

5) 중성화 수술에 관한 조사



-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에 관한 조사를 확인한 결과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가 67명(4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가 21명(14.5%),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가 20명(13.8%),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가 12명(8.3%),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가 5명(3.4%),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가 2명(1.4%), 중성화 수술은 동물 학대이다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도 17명(11.7%)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어려서, 시간이 없어서, 잠복고환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에 데려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할머니의 반대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21	14.5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12	8.3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다	1	0.7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5	3.4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67	46.2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20	13.8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	2	1.4
	기타	17	11.7
	총계	145	100.0

6) 반려견 산책

□ 반려견 산책빈도를 확인한 결과 매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7명 (43.8%)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6회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58명 (44.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일주일 3회가 18명(13.8%), 일주일에 1회가 13명(10.0%), 일주일에 2회가 11명(8.5%), 일주일에 5회가 10명(7.7%), 일주일에 4회가 5명(3.8%), 일주일에 6회가 1명(0.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 가끔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9명(6.9%),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명(4.6%)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체산책 빈도는 평균 4.469회(SD=3.164)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견을 기르는 응답자는 일주일에 평균 4-5일 정도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반려견 산책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반려견 산책 빈도	매일	57	43.8	4.469	3.164	
	일주일 1~6회	1	13			10.0
		2	11			8.5
		3	18			13.8
		4	5			3.8
		5	10			7.7
		6	1			0.8
	아주 가끔	9	6.9			
	전혀 안 한다	6	4.6			
총계	130	100.0				

7)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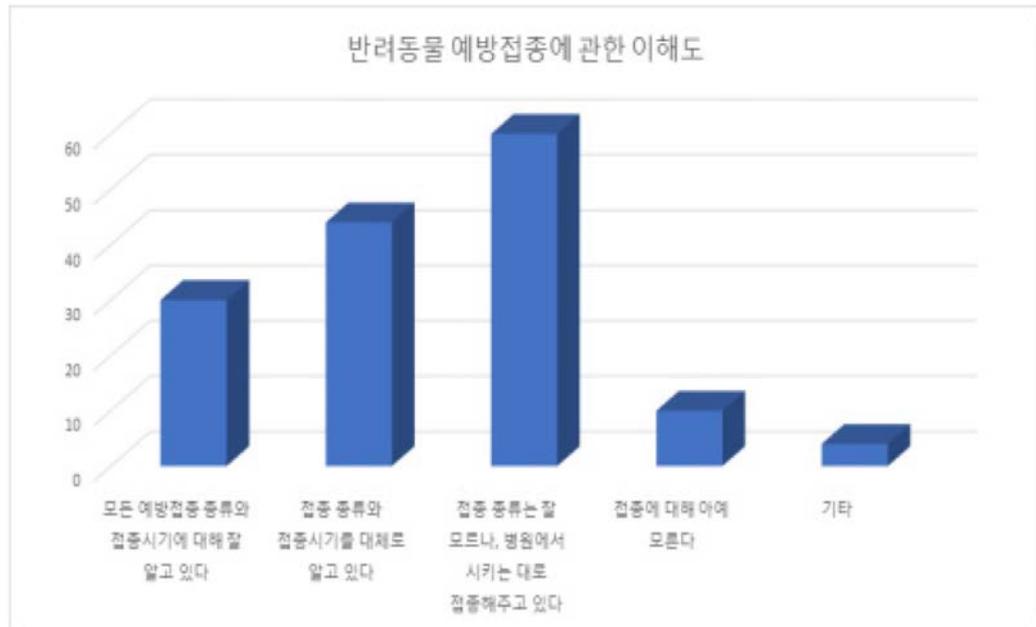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의 물품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스크래처가 29명(1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28명(18.8%), 발톱깎이 27명(18.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캣타워 혹은 캣폴 23명(15.4%), 고양이 장난감 여러개 22명(14.8%), 고양이 장난감 1개 19명(12.8%), 기타 1명(0.7%)으로 나타났다.

〈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고양이를 위해 가지고 있는 물품의 종류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28	18.8
	고양이 장난감 1개	19	12.8
	고양이 장난감 여러개	22	14.8
	캣타워 혹은 캣폴	23	15.4
	스크래처	29	19.5
	발톱깎이	27	18.1
	기타	1	0.7
총계	149	100.0	

8) 반려동물 예방접종 현황

(1)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가 60명(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가 44명(29.7%),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30명(20.3%),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0명(6.8%), 기타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의 경우 집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 등의 내용이 응답되었다.

〈표〉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0	20.3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	44	29.7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	60	40.5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0	6.8
	기타	4	2.7
총계		148	100.0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으로 반려견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견 종합백신을 새끼 때 해줬다가 77명(6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 34명(27.6%), 안해준다 8명(6.5%), 뭘지 모른다가 4명(3.3%)로 나타났다. 또한, 광견병 백신의 경우 1년에 한번이 51명(42.1%), 새끼 때 해줬다가 50명(41.3%), 안해준다 12명(9.9%), 뭘지 모른다가 8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사상충 예방의 경우 한달에 한번이 71명(5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새끼 때 해줬다가 23명(18.9%), 안해준다와 1년에 한번이 각각 11명(9.0%), 뭘지 모른다가 6명(4.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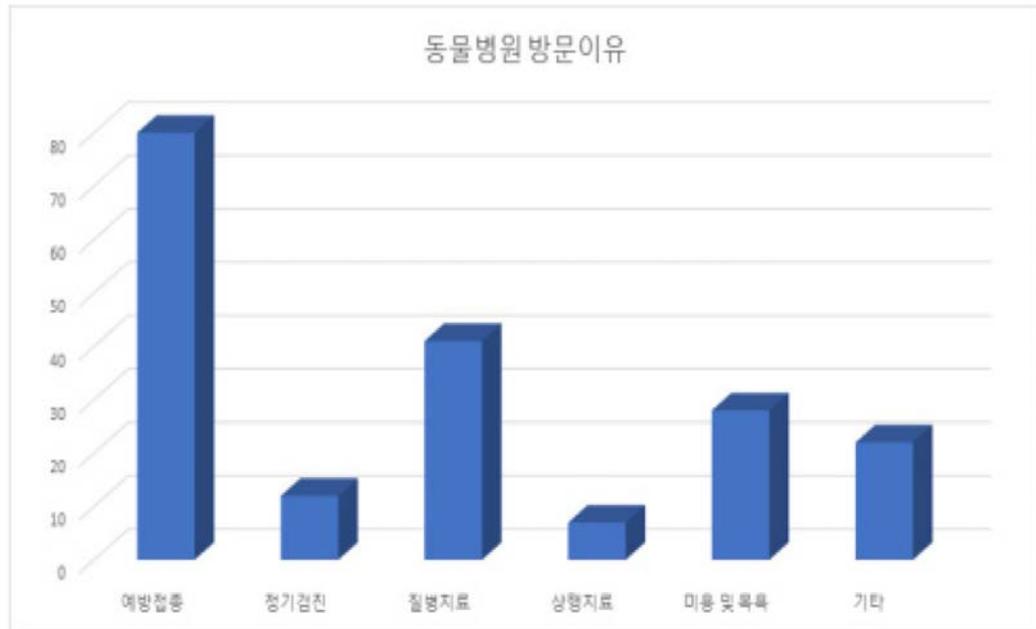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으로 반려묘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묘 종합백신으로 새끼 때 해줬다가 19명(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이 7명(24.1%), 안해준다 3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묘 광견병 백신의 경우 새끼 때 해줬다가 8명(28.6%), 안해준다와 1년에 한번이 각각 7명(25.0%), 뭘지 모른다가 6명(2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견 종합백신	안 해준다	8	6.5
	새끼 때 해줬다	77	62.6
	1년에 한번	34	27.6
	원지 모른다	4	3.3
	총계	123	100.0
광견병 백신	안 해준다	12	9.9
	새끼 때 해줬다	50	41.3
	1년에 한번	51	42.1
	원지 모른다	8	6.6
	총계	121	100.0
심장사상충 예방	안 해준다	11	9.0
	새끼 때 해줬다	23	18.9
	1년에 한번	11	9.0
	한달에 한번	71	58.2
	원지 모른다	6	4.9
	총계	122	100.0
반려묘 종합백신	안 해준다	3	10.3
	새끼 때 해줬다	19	65.5
	1년에 한번	7	24.1
	총계	29	100.0
반려묘 광견병 백신	안 해준다	7	25.0
	새끼 때 해줬다	8	28.6
	1년에 한번	7	25.0
	원지 모른다	6	21.4
	총계	28	100.0

9) 동물병원 방문 이유 및 보험등록 유무

(1)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응답으로는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9명(81.0%),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8명(19.0%)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응답내용을 확인하면, 예방접종이 80명(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질병치료 41명(21.6%), 미용 및 목욕 28명(14.7%), 기타 22명(11.6%), 정기검진 12명(6.3%), 상해치료 7명(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사료 및 간식 문의, 심장사상충예방, 사료구매, 약처방, 유기견 나이를 물어보러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있었다	119	81.0
	없었다	28	19.0
	총계	147	100.0
동물병원 방문 이유	예방접종	80	42.1
	정기검진	12	6.3
	질병치료	41	21.6
	상해치료	7	3.7
	미용 및 목욕	28	14.7
	기타	22	11.6
	총계	1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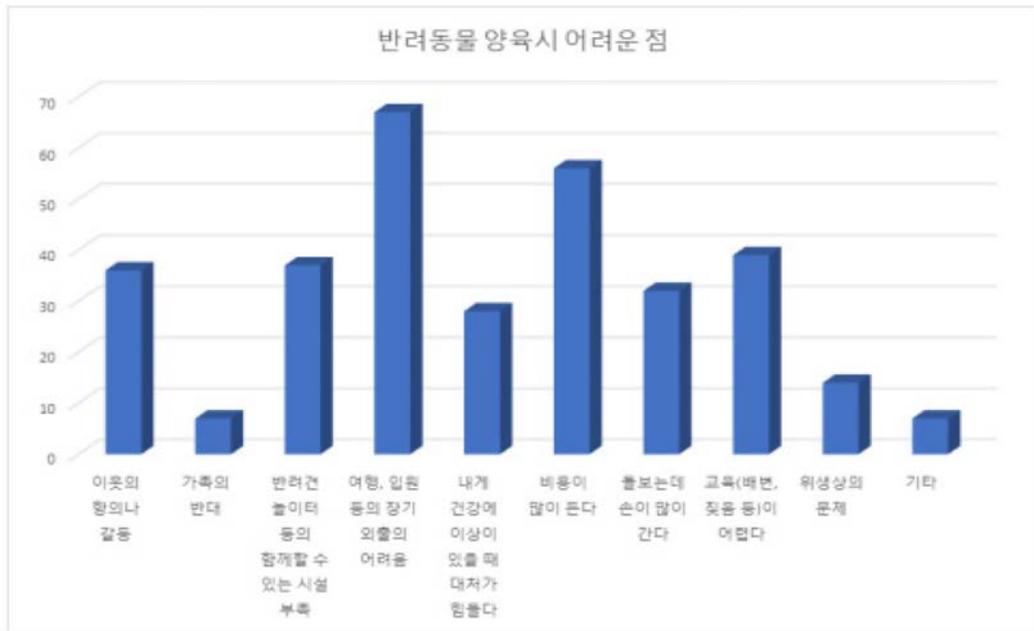
(2)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 반려동물의 동물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결과 가입하지 않음이 148명 (9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르는 반려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과 기르는 동물 일부만 가입함이 각각 1명(0.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구분		빈도	올바른 퍼센트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하지 않음	148	98.7
	기르는 반려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	1	0.7
	기르는 동물 일부만 가입함	1	0.7
	총계	150	100.0

10)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을 확인한 결과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이 67명(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도 56명(17.3%)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는 교육(배변, 짖음 등)이 어렵다가 39명(12.1%),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가 37명(11.5%), 이웃의 항의나 갈등이 36명(11.1%),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간다가 32명(9.9%),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가 28명(8.7%), 위생상의 문제가 14명(4.3%), 가족의 반대 및 기타가 각각 7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산책 매일가기 힘들다와 집에 혼자 두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이웃의 항의나 갈등	36	11.1
	가족의 반대	7	2.2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부족	37	11.5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	67	20.7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28	8.7
	비용이 많이 든다	56	17.3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	32	9.9
	교육(배변, 짖음 등)이 어렵다	39	12.1
	위생상의 문제	14	4.3
	기타	7	2.2
	총계	323	100.0

11) 반려동물을 통한 변화

(1) 반려동물을 통한 삶의 만족도 변화



□ 반려동물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39명(95.2%)의 비율을 보였으며, 변화가 없다가 4명(2.7%),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3명(2.1%)의 비율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대화 등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이 24명(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서적 안정(외로움 감소)이 된다고도 23명(24.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18명(18.8%), 애교가 사랑스러움이 11명(11.5%), 나에게 기쁨을 줌 8명(8.3%), 건강이 좋아짐이 3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유로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키우기 힘들과 건강상 돌보기 힘들이 각각 1명(50.0%)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139	95.2
	변화 없다	4	2.7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3	2.1
	총계	146	100.0
만족이유	대화 등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	24	25.0
	가족이 생겨서 좋음	9	9.4
	애교가 사랑스러움	11	11.5
	건강이 좋아짐	3	3.1
	나에게 기쁨을 줌	8	8.3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	18	18.8
	정서적 안정(외로움 감소)	23	24.0
	총계	96	100.0
불만족 이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키우기 힘들	1	50.0
	건강상 돌보기 힘들	1	50.0
	총계	2	100.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9개의 문항 중에서 책임감이 생겼다가 평균 4.70(SD=.503)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도 평균 4.62(SD=.514)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서는 생활이 활기차졌다 평균 4.48(SD=.654),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평균 4.20(SD=.779),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평균 4.14(SD=.970),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평균 4.11(SD=.916),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평균 4.07(SD=.970),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평균 3.86(SD=.873), 건강이 좋아졌다 평균 3.84(SD=.871) 순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책임감이 생겼다	매우 그렇다	107	71.8	4.70	.503
	그렇다	39	26.2		
	모르겠다	3	2.0		
	그렇지 않다	-	-		
	전혀 아니다	-	-		
	총계	149	100.0		
생활이 활기차졌다	매우 그렇다	80	54.1	4.48	.654
	그렇다	62	41.9		
	모르겠다	4	2.7		
	그렇지 않다	1	0.7		
	전혀 아니다	1	0.7		
	총계	148	100.0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매우 그렇다	65	44.2	4.14	.970
	그렇다	50	34.0		
	모르겠다	21	14.3		
	그렇지 않다	9	6.1		
	전혀 아니다	2	1.4		
	총계	147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매우 그렇다	94	63.5	4.62	.514
	그렇다	52	35.1		
	모르겠다	2	1.4		
	그렇지 않다	-	-		
	전혀 아니다	-	-		
	총계	148	100.0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매우 그렇다	60	40.3	4.11	.916
	그렇다	54	36.2		
	모르겠다	28	18.8		
	그렇지 않다	5	3.4		
	전혀 아니다	2	1.3		
	총계	149	100.0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55	37.2	4.20	.779
	그렇다	72	48.6		
	모르겠다	18	12.2		
	그렇지 않다	1	0.7		
	전혀 아니다	2	1.4		
	총계	148	100.0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매우 그렇다	60	40.8	4.07	.970
	그렇다	48	32.7		
	모르겠다	31	21.1		
	그렇지 않다	5	3.4		
	전혀 아니다	3	2.0		
	총계	147	100.0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41	27.7	3.86	.873
	그렇다	50	33.8		
	모르겠다	53	35.8		
	그렇지 않다	3	2.0		
	전혀 아니다	1	0.7		
	총계	148	100.0		
건강이 좋아졌다	매우 그렇다	41	27.7	3.84	.871
	그렇다	47	31.8		
	모르겠다	57	38.5		
	그렇지 않다	2	1.4		
	전혀 아니다	1	0.7		
	총계	148	100.0		

(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이외의 변화)

□ 반려동물을 통한 9개의 항목 이외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족들이 공동화제가 생기고 단합하게 되었다,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시야 넓어짐. 세심. 배려가 높아졌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졌다, 산책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이외의 변화

구분	빈도	
이외의 변화	가족들이 공동화제가 생기고 단합함	1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4
	행복지수가 올라감	1
	시야 넓어짐. 세심. 배려가 높아짐	1
	심리적인 안정감	6
	산책을 통해 건강이 좋아짐	3
	총계	16

(4)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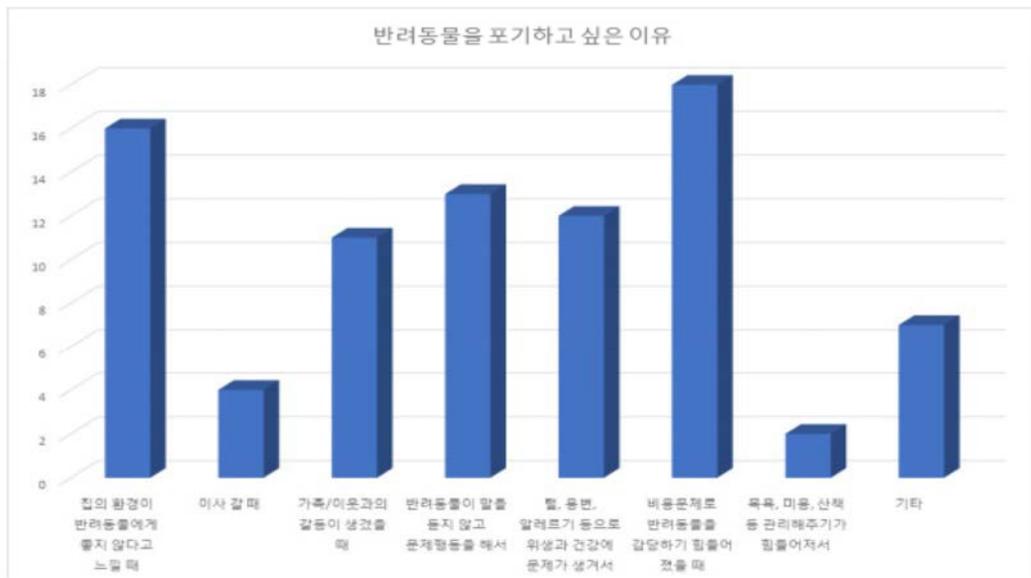


□ 반려동물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질문을 통한 응답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132명(8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와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 각각 7명(4.7%),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가 4명(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대답이 88.0%, 부정적인 대답이 12.0%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이 나에게 주는 존재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132	88.0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7	4.7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4	2.7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7	4.7
	총계	150	100.0

12)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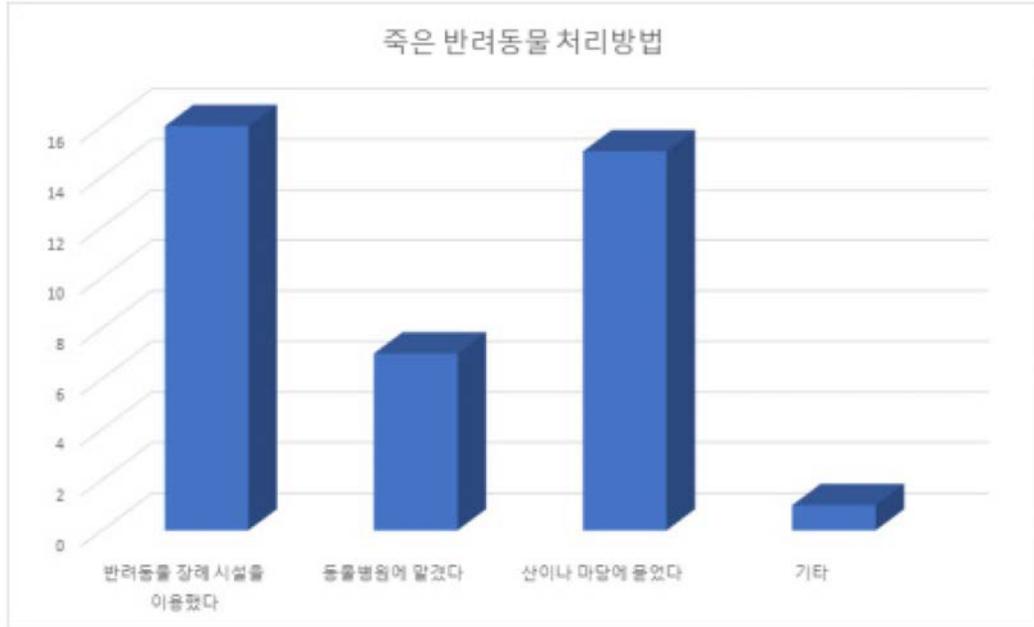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1명(67.8%), 있었다가 48명(32.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가 18명(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16명(19.3%),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가 13명(15.7%),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가 12명(14.5%),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가 11명(13.3%), 이사 갈 때가 4명(4.8%),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져서가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도 7명(8.4%)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와 건강상 돌보기 힘들어 졌을 때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과 이유(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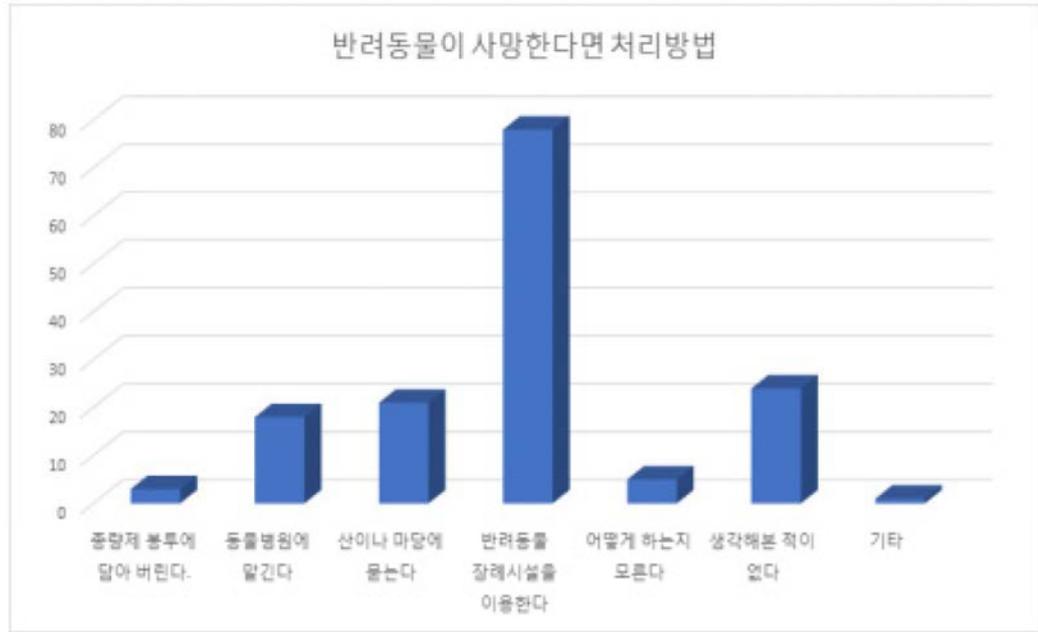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	없었다	101	67.8
	있었다	48	32.2
	총계	149	100.0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6	19.3
	이사 갈 때	4	4.8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11	13.3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13	15.7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12	14.5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	18	21.7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져서	2	2.4
	기타	7	8.4
	총계	83	100.0

13)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및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가 41명(54.7%), 있었다가 34명(45.3%)으로 나타났다.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가 16명(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가 15명(38.5%), 동물병원에 맡겼다가 7명(17.9%), 기타가 1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고 78명(5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24명(16.0%),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고 21명(14.0%), 동물병원에 맡긴다고 18명(12.0%),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5명(3.3%),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3명(2.0%), 기타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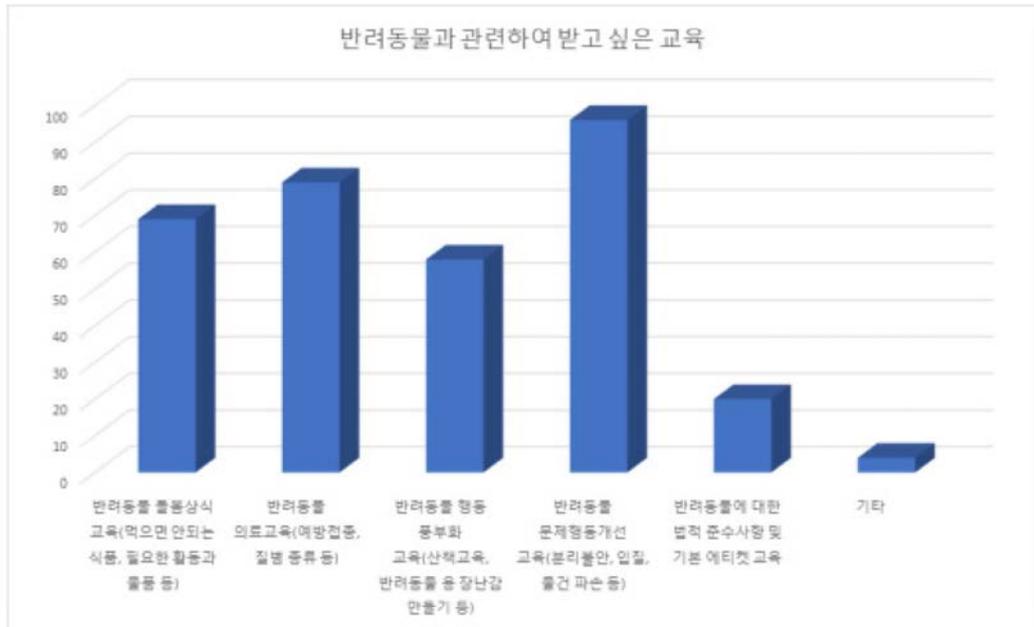


〈표〉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없었다	41	54.7
	있었다	35	24.0
	총계	146	100.0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	16	41.0
	동물병원에 맡겼다	7	17.9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	15	38.5
	기타	1	2.6
	총계	39	100.0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처리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3	2.0
	동물병원에 맡긴다	18	12.0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21	14.0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	78	52.0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5	3.3
	생각해본 적이 없다	24	16.0
	기타	1	0.7
	총계	150	100.0

14)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1)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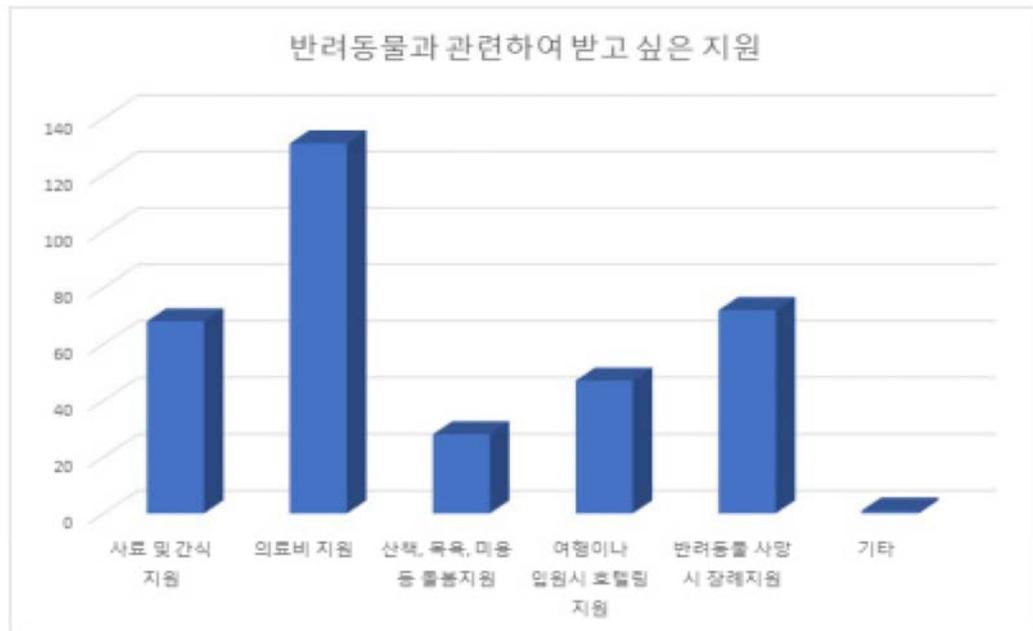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을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교육(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96명(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이 79명(24.2%)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는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69명(21.2%), 반려동물 행동풍부화 교육(산책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이 58명(17.8%),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이 20명(6.1%), 기타교육이 4명(1.2%)의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교육에 관한 의견으로는 배변교육과 식변증 해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 (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69	21.2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79	24.2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교육, 반려동물 용 장난감 만들기 등)	58	17.8
	반려동물 문제행동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96	29.4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20	6.1
	기타	4	1.2
총계		326	100.0

(2)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131명 (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

레지원이 72명(20.7%), 사료 및 간식 지원 68명(19.6%), 여행이나 입원시 호텔링 지원 47명(13.5%),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28명(8.1%), 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사료 및 간식 지원	68	19.6
	의료비 지원	131	37.8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28	8.1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47	13.5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	72	20.7
	기타	1	0.3
총계		3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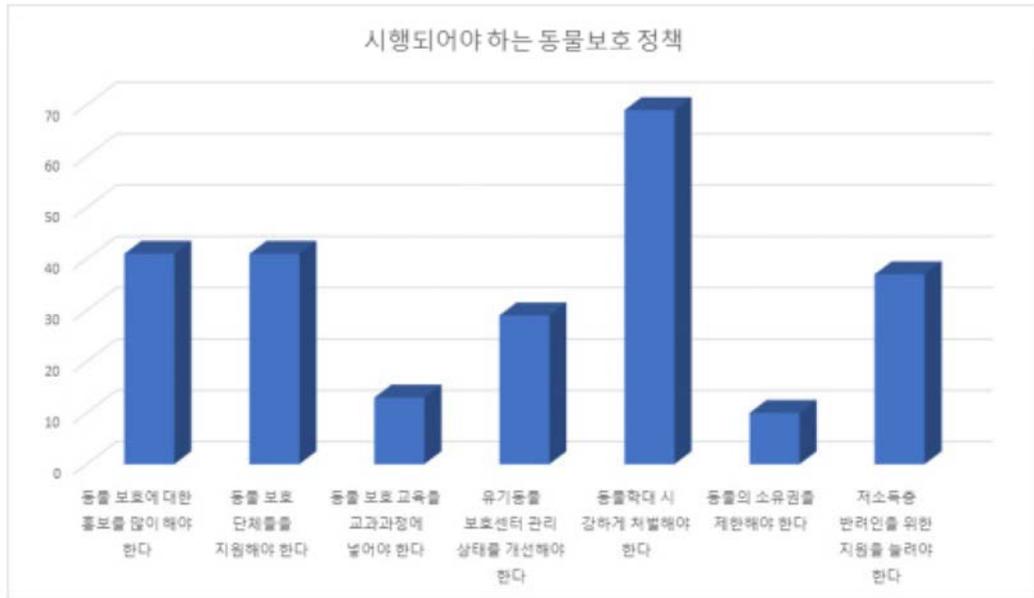
15)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내용

(1)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127명(8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명(13.3%)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명(1.3%), 잘 모르겠다 1명(0.7%)의 비율을 보였다.

□ 시행되어야 하는 동물보호 정책의 내용으로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69명(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각각 41명(17.1%)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

을 늘려야 한다가 37명(15.4%),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가 29명(12.1%), 동물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가 13명(5.4%),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가 10명(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27	84.7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	13.3
	별로 필요하지 않다	2	1.3
	잘 모르겠다	1	0.7
	총계	150	100.0
시행되어야 하는 동물보호 정책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41	17.1
	동물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41	17.1
	동물 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13	5.4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29	12.1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69	28.8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	10	4.2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37	15.4
	총계	240	100.0

(2)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 우리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바라는 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배변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이 8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이 4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길고양이 인식개선, 길고양이 보호 미흡, 반려동물 시설 부족, 방치되는 개의 울부짖음과 소유권 제한 필요함, 큰개의 입막음 문제와 동물과의 싸움 시 상해 분쟁문제가 각각 2명으로 문제에 바라는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고양이를 위한 캣맘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길고양이 번식 및 상태 문제, 떠돌이 개들의 관리 문제,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 떠돌이 개 및 길고양이의 지정된 급식시설 마련 필요, 시체 처리를 위한 방안(처리장소 마련 등),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문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의견도 나타났다.

<표>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구분		빈도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	4
	반려동물 배변문제 개선	8
	길고양이 인식개선	2
	길고양이를 위한 캣맘지원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길고양이 번식 및 상태 문제	1
	길고양이 보호 미흡	2
	떠돌이 개들의 관리 문제	1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	1
	떠돌이 개, 길고양이의 지정된 급식시설 마련 필요	1
	로드킬 예방 문제	1
	반려동물 시설 부족	2
	방치되는 개의 울부짖음, 소유권 제한 필요함	2
	시체 처리를 위한 방안(처리장소 마련 등)	1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문제	1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	1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1
	큰개의 입막음 문제, 동물과의 싸움 시 상해 분쟁문제	2
	총계	33

(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동물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법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1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집분양, 동행 출입시설 증설, 운동공간, 부재 시 돌봄서비스)하다는 의견도 8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교육 지원(입양시 필수교육 등)도 6명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과 동물관련 예산 지원확대 지원에 관한 의견도 각각 4명씩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촉진, 동물보호센터 개선, 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 필요, 예방접종 지원, 유기견 보호서 열악한 환경 개선, 의료보험(동물) 필요, 중성화 수술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및 확대 필요에 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구분		빈도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촉진	1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	4
	동물관련 예산 지원확대	4
	동물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법 강화 등)	11
	동물에 대한 교육 지원(입양 시 필수교육 등)	6
	동물보호센터 개선	1
	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 필요	2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집분양, 동행 출입시설 증설, 운동공간, 부재 시 돌봄서비스)	8
	예방접종 지원	1
	유기견 보호서 열악한 환경 개선	1
	의료보험(동물) 필요	1
	중성화수술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확대 필요	3
	더 많은 사업 지원 필요	4
	총계	47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1) 동물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등록제 알게 된 경로							x ²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동물병원을 통해	인터넷(카베/블로그)을 통해	가족/친戚/지인/지인을 통해	신문/잡지를 통해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기타	
성별	여성	30.8	15.4	26.0	16.3	2.9	1.9	6.7	2088
	남성	47.1	17.6	14.7	8.8	2.9	2.9	5.9	
주택형태	단독주택	46.7	13.3	13.3	13.3	0.0	0.0	13.3	9615
	아파트	40.0	20.0	18.3	10.0	3.3	1.7	6.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7.4	12.9	30.6	17.7	3.2	3.2	4.8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3.3	14.3	14.3	21.4	2.4	0.0	14.3	30489
	1세대 세대(부부)	50.0	8.3	33.3	0.0	0.0	8.3	0.0	
	2세대	34.3	17.1	27.1	14.3	2.9	1.4	2.9	
	3세대	33.3	16.7	0.0	16.7	0.0	16.7	16.7	
	기타	28.6	28.6	28.6	0.0	14.3	0.0	0.0	

구분		등록제 알게 된 경로							x ²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동료/친원 을 통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를 통해	가족/친척/ 친구/ 지인을 통해	신문/잡지 를 통해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기타	
연령대	10대 이하	35.3	5.9	23.5	17.6	5.9	5.9	5.9	37.979
	20대	18.2	18.2	31.8	22.7	4.5	0.0	4.5	
	30대	31.6	5.3	31.6	5.3	10.5	10.5	5.3	
	40대	50.0	12.5	25.0	8.3	0.0	0.0	4.2	
	50대	45.2	25.8	9.7	16.1	0.0	0.0	3.2	
	60대 이상	21.7	17.4	26.1	17.4	0.0	0.0	17.4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30.6	22.2	16.7	16.7	0.0	0.0	13.9	24.339
	100~150만원 미만	36.7	16.7	26.7	3.3	10.0	3.3	3.3	
	150~200만원 미만	35.0	15.0	20.0	10.0	5.0	10.0	5.0	
	200만원 이상	34.6	11.5	19.2	30.8	0.0	0.0	3.8	
거주지역	동부	40.0	20.0	26.7	6.7	3.3	0.0	3.3	24.915
	서부	28.6	16.7	23.8	14.3	2.4	7.1	7.1	
	남부	30.0	0.0	35.0	15.0	0.0	0.0	20.0	
	북부	39.1	19.6	15.2	19.6	4.3	0.0	2.2	

2)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반려견 산책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산책				x ²
		매일	일주일 1회	일주일 2회	일주일 3회	
성별	여성	43.8	44.8	8.3	3.1	2.038
	남성	44.1	41.2	5.9	8.8	
주택 형태	단독주택	25.0	50.0	16.7	8.3	4.975
	아파트	45.9	45.9	3.3	4.9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46.4	41.1	8.9	3.6	
가구 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46.3	39.0	7.3	7.3	14.524
	1세대 세대(부부)	66.7	16.7	16.7	0.0	
	2세대	34.4	54.7	7.8	3.1	
	3세대	71.4	28.6	0.0	0.0	
	기타	50.0	33.3	0.0	16.7	
연령대	10대 이하	56.3	37.5	0.0	6.3	19.169
	20대	20.8	66.7	12.5	0.0	
	30대	50.0	43.8	0.0	6.3	
	40대	33.3	38.1	19.0	9.5	
	50대	42.9	46.4	7.1	3.6	
	60대 이상	60.9	30.4	4.3	4.3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51.4	32.4	8.1	8.1	10.023
	100~150만원 미만	34.6	61.5	0.0	3.8	
	150~200만원 미만	46.7	53.3	0.0	0.0	
	200만원 이상	42.3	42.3	11.5	3.8	
거주 지역	동부	37.0	40.7	14.8	7.4	8.586
	서부	50.0	42.1	7.9	0.0	
	남부	38.9	55.6	5.6	0.0	
	북부	44.7	42.6	4.3	8.5	

3)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지출 비용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동물 지출비용					x ²
		30,000원 미만	30,000 ~50,000원 미만	50,000 ~100,000원 미만	100,000 ~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성별	여성	8.4	9.3	45.8	27.1	9.3	23.642
	남성	10.8	10.8	37.8	29.7	10.8	
주택 형태	단독주택	5.9	11.8	35.3	23.5	23.5	9.531
	아파트	13.3	13.3	43.3	25.0	5.0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6.1	6.1	45.5	31.8	10.6	
가구 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5.6	13.3	37.8	26.7	6.7	.809
	1세대 세대(부부)	0.0	9.1	45.5	27.3	18.2	
	2세대	6.8	6.8	48.6	27.0	10.8	
	3세대	0.0	14.3	42.9	42.9	0.0	
	기타	16.7	16.7	16.7	33.3	16.7	
연령대	10대 이하	0.0	16.7	50.0	27.8	5.6	23.642
	20대	0.0	8.0	52.0	28.0	12.0	
	30대	5.0	5.0	45.0	30.0	15.0	

구분		반려동물 지출비용					x ²
		30,000원 미만	30,000 ~ 50,000원 미만	50,000 ~ 100,000원 미만	100,000 ~ 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연령대	40대	12.5	12.5	33.3	20.8	20.8	23.642
	50대	22.6	3.2	45.2	22.6	6.5	
	60대 이상	8.3	16.7	41.7	33.3	0.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5.4	10.3	38.5	30.8	5.1	8.981
	100~150만원 미만	10.3	6.9	44.8	27.6	10.3	
	150~200만원 미만	10.0	0.0	60.0	15.0	15.0	
	200만원 이상	3.2	9.7	45.2	32.3	9.7	
거주지역	동부	13.3	6.7	33.3	23.3	23.3	19.574
	서부	9.1	11.4	50.0	27.3	2.3	
	남부	9.5	19.0	28.6	42.9	0.0	
	북부	6.1	6.1	51.0	24.5	12.2	

4) 동물병원 경험 및 예방접종에 관한 교차분석

(1)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동물병원 경험		x ²
		있었다	없었다	
성별	여성	82.6	17.4	3.206
	남성	76.3	23.7	
주택형태	단독주택	81.3	18.8	3.064
	아파트	87.1	12.9	
	연립/빌라/다세대주택	75.0	25.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86.4	13.6	3.542
	1세대 세대(부부)	75.0	25.0	
	2세대	76.6	23.4	
	3세대	100.0	0.0	
	기타	85.7	14.3	
연령대	10대 이하	83.3	16.7	8.594*
	20대	96.2	3.8	
	30대	65.0	35.0	
	40대	75.0	25.0	
	50대	84.8	15.2	
	60대 이상	75.0	25.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82.1	17.9	2.636
	100~150만원 미만	89.7	10.3	
	150~200만원 미만	75.0	25.0	
	200만원 이상	75.0	25.0	
거주지역	동부	76.7	23.3	1.952
	서부	77.8	22.2	
	남부	90.5	9.5	
	북부	82.4	17.6	

*p< .05

(2)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견 종합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주택형태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chi^2 = 13.101$,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견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원지 모른다	
성별	여성	7.8	56.7	32.2	3.3	5.277
	남성	3.0	78.8	15.2	3.0	
주택형태	단독주택	25.0	66.7	8.3	0.0	13.101*
	아파트	5.1	61.0	32.2	1.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0	64.7	27.5	5.9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7.3	63.4	26.8	2.4	7.049
	1세대 세대(부부)	0.0	66.7	33.3	0.0	
	2세대	7.0	61.4	26.3	5.3	
	3세대	0.0	85.7	14.3	0.0	
	기타	16.7	33.3	50.0	0.0	
연령대	10대 이하	25.0	43.8	25.0	6.3	21.634
	20대	8.7	52.2	39.1	0.0	
	30대	0.0	61.5	38.5	0.0	
	40대	5.0	70.0	20.0	5.0	
	50대	0.0	80.8	19.2	0.0	
	60대 이상	4.3	56.5	30.4	8.7	

구분		반려견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원지 모른다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8.1	56.8	29.7	5.4	5.547
	100~150만원 미만	4.0	76.0	20.0	0.0	
	150~200만원 미만	0.0	71.4	21.4	7.1	
	200만원 이상	8.3	54.2	33.3	4.2	
거주지역	동부	4.2	62.5	29.2	4.2	6.886
	서부	8.1	70.3	21.6	0.0	
	남부	0.0	64.7	35.3	0.0	
	북부	8.9	55.6	28.9	6.7	

*p< .05

(3)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광견병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나(x² =10.567,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원지 모른다	
성별	여성	10.0	33.3	50.0	6.7	10.567*
	남성	9.7	64.5	19.4	6.5	
주택형태	단독주택	9.1	45.5	36.4	9.1	3.427
	아파트	6.9	46.6	43.1	3.4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11.8	35.3	43.1	9.8	

구분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원지 모른다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2.5	32.5	50.0	5.0	7.049
	1세대 세대 (부부)	0.0	50.0	50.0	0.0	
	2세대	8.9	44.6	37.5	8.9	
	3세대	14.3	42.9	28.6	14.3	
	기타	16.7	50.0	33.3	0.0	
연령대	10대 이하	25.0	25.0	43.8	6.3	18.612
	20대	17.4	21.7	47.8	13.0	
	30대	0.0	46.2	46.2	7.7	
	40대	10.0	60.0	25.0	5.0	
	50대	4.2	54.2	37.5	4.2	
	60대 이상	4.3	34.8	56.5	4.3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1.1	36.1	47.2	5.6	15.217
	100~150만원 미만	0.0	50.0	42.3	7.7	
	150~200만원 미만	0.0	57.1	28.6	14.3	
	200만원 이상	27.3	27.3	40.9	4.5	
거주지역	동부	8.3	45.8	37.5	8.3	4.009
	서부	10.8	45.9	37.8	5.4	
	남부	0.0	43.8	50.0	6.3	
	북부	13.6	34.1	45.5	6.8	

*p < .05

(4)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심장사상충 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chi^2 = 36.984$,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					χ^2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한달에 한번	원지 모른다	
성별	여성	7.7	14.3	7.7	64.8	5.5	8.308
	남성	12.9	32.3	12.9	38.7	3.2	
주택 형태	단독주택	16.7	25.0	8.3	41.7	8.3	4.725
	아파트	5.3	15.8	8.8	66.7	3.5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11.5	21.2	7.7	53.8	5.8	
가구 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3.2	15.8	2.6	60.5	7.9	14.709
	1세대 세대 (부부)	0.0	41.7	0.0	58.3	0.0	
	2세대	8.5	18.6	13.6	54.2	5.1	
	3세대	0.0	14.3	14.3	71.4	0.0	
	기타	16.7	0.0	16.7	66.7	0.0	
연령대	10대 이하	31.3	25.0	0.0	43.8	0.0	36.984*
	20대	0.0	8.3	8.3	66.7	16.7	
	30대	0.0	28.6	7.1	64.3	0.0	
	40대	5.0	35.0	20.0	35.0	5.0	
	50대	8.0	20.0	8.0	64.0	0.0	
	60대 이상	14.3	4.8	9.5	66.7	4.8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20.6	17.6	5.9	52.9	2.9	24.984
	100~150만원 미만	4.0	12.0	12.0	64.0	8.0	
	150~200만원 미만	0.0	28.6	7.1	64.3	0.0	
	200만원 이상	8.0	16.0	12.0	64.0	0.0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한달에 한번	웬지 모른다	
거주 지역	동부	8.0	32.0	4.0	48.0	8.0	20.608
	서부	8.3	13.9	5.6	63.9	8.3	
	남부	0.0	40.0	0.0	60.0	0.0	
	북부	13.0	8.7	17.4	58.7	2.2	

*p< .05

(5)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묘 종합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묘 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성별	여성	9.1	63.6	27.3	.559
	남성	14.3	71.4	14.3	
주택형태	단독주택	16.7	83.3	0.0	6.897
	아파트	0.0	100.0	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1.1	50.0	38.9	

구분		반려묘 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16.7	66.7	16.7	1.079
	1세대 세대(부부)	9.5	61.9	28.6	
	2세대	0.0	100.0	0.0	
	3세대	33.3	66.7	0.0	
	기타	0.0	66.7	33.3	
연령대	10대 이하	33.3	66.7	0.0	13.491
	20대	0.0	66.7	33.3	
	30대	0.0	42.9	57.1	
	40대	0.0	66.7	33.3	
	50대	28.6	71.4	0.0	
	60대 이상	0.0	100.0	0.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25.0	75.0	0.0	7.300
	100~150만원 미만	0.0	80.0	20.0	
	150~200만원 미만	0.0	62.5	37.5	
	200만원 이상	0.0	66.7	33.3	

(6)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하게 나타났고 (x² =17.358,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묘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원지 모른다	
성별	여성	23.8	23.8	28.6	23.8	1.365
	남성	28.6	42.9	14.3	14.3	
주택 형태	단독주택	50.0	16.7	16.7	16.7	4.626
	아파트	0.0	40.0	20.0	4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3.5	29.4	29.4	17.6	
가구 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50.0	16.7	0.0	33.3	5.076
	1세대 세대(부부)	19.0	33.3	33.3	14.3	
	2세대	33.3	66.7	0.0	0.0	
	3세대	0.0	0.0	33.3	66.7	
	기타	0.0	42.9	28.6	28.6	
연령대	10대 이하	33.3	66.7	0.0	0.0	14.844
	20대	0.0	0.0	33.3	66.7	
	30대	0.0	42.9	28.6	28.6	
	40대	33.3	16.7	33.3	16.7	
	50대	40.0	20.0	40.0	0.0	
	60대 이상	50.0	25.0	0.0	25.0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75.0	25.0	0.0	0.0	17.358*
	100~150만원 미만	0.0	0.0	25.0	75.0	
	150~200만원 미만	0.0	37.5	37.5	25.0	
	200만원 이상	22.2	33.3	33.3	11.1	

5)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가구 형태에 따라 키우게 된 이유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chi^2 = 66.008$,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χ^2
		아이들 경서 상의 교육 목적으로	동물 을 좋아 해서	외로 워서	가족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지인을 통해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유기 동물이 불쌍 해서	타인 (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 으로	전에 키우던 반려 동물을 인지 못해서	기타	
성별	여성	11.3	30.5	11.3	8.9	15.0	9.4	5.2	4.7	3.8	8.814
	남성	12.0	34.7	10.7	10.7	16.0	4.0	2.7	9.3	0.0	
주거형태	단독주택	12.9	29.0	9.7	12.9	19.4	9.7	0.0	6.5	0.0	7.531
	아파트	9.9	29.8	12.4	9.9	15.7	6.6	6.6	6.6	2.5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12.8	33.8	9.8	8.3	13.5	9.0	3.8	5.3	3.8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1	30.7	22.7	3.4	17.0	6.8	6.8	6.8	4.5	66.008 ***
	1세대 세대 (부부)	0.0	45.0	10.0	10.0	15.0	5.0	0.0	15.0	0.0	
	2세대	16.9	29.9	5.2	10.4	16.9	10.4	3.9	5.2	1.3	
	3세대	26.7	26.7	6.7	26.7	0.0	0.0	6.7	0.0	6.7	
	기타	10.0	50.0	10.0	20.0	0.0	0.0	0.0	0.0	1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0.0	23.1	38.5	0.0	15.4	0.0	7.7	0.0	15.4	8.753
	100~150만원 미만	3.2	27.4	19.4	6.5	16.1	6.5	8.1	9.7	3.2	
	150~200만원 미만	13.6	33.3	10.6	9.1	16.7	10.6	1.5	3.0	1.5	
	200만원이상	22.5	40.0	2.5	15.0	5.0	7.5	2.5	2.5	2.5	

구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x ²
		아이들 정서 상인 교과목 적으로	동물을 좋아 해서	외로 워서	가족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지인을 통해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유기 동물이 불쌍 해서	타인 (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 으로	전에 키우던 반려 동물을 잊지 못해서	기타	
연령 구분	10대 이하	11.1	37.0	3.7	7.4	14.8	11.1	3.7	7.4	3.7	64.533
	20대	18.8	25.0	12.5	6.3	12.5	6.3	6.3	6.3	6.3	
	30대	5.8	44.2	7.7	15.4	13.5	3.8	3.8	1.9	3.8	
	40대	12.5	30.0	10.0	10.0	12.5	12.5	2.5	7.5	2.5	
	50대	18.2	27.3	9.1	6.8	18.2	11.4	4.5	4.5	0.0	
	60대 이상	11.5	29.5	13.1	8.2	16.4	8.2	3.3	9.8	0.0	
키우 기 간 대	1년미만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32.689
	1~2년미만	25.0	16.7	8.3	8.3	25.0	0.0	0.0	16.7	0.0	
	2~3년미만	11.1	44.4	5.6	5.6	16.7	11.1	0.0	5.6	0.0	
	3~5년미만	23.1	23.1	7.7	7.7	7.7	7.7	7.7	15.4	0.0	
	5~10년미만	15.8	31.6	21.1	10.5	0.0	10.5	5.3	5.3	0.0	
	10년이상	7.3	39.0	2.4	4.9	12.2	12.2	7.3	7.3	7.3	

*p< .05, **p< .01, ***p< .001

6)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반려동물의 급식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동물의 급식(다중응답)			
		건,습사료	잔반	기타	χ^2
성별	여성	96.3	2.2	1.5	2.477
	남성	95.2	0.0	4.8	
주택형태	단독주택	100.0	0.0	0.0	1.540
	아파트	94.5	2.7	2.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96.3	1.2	2.4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92.9	1.8	5.4	10.200
	1세대 세대(부부)	100.0	0.0	0.0	
	2세대	97.9	2.1	0.0	
	3세대	100.0	0.0	0.0	
	기타	85.7	0.0	14.3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100.0	0.0	0.0	19.477
	100~150만원 미만	86.8	2.6	10.5	
	150~200만원 미만	97.3	2.7	0.0	
	200만원 이상	100.0	0.0	0.0	
연령대	10대 이하	93.3	0.0	6.7	12.312
	20대	100.0	0.0	0.0	
	30대	100.0	0.0	0.0	
	40대	88.9	3.7	7.4	
	50대	100.0	0.0	0.0	
	60대 이상	94.4	2.8	2.8	

구분		반려동물의 급식(다중응답)			
		건,습사료	잔반	기타	χ^2
키운기간대	1년미만	100.0	0.0	0.0	9.245
	1~2년미만	100.0	0.0	0.0	
	2~3년미만	100.0	0.0	0.0	
	3~5년미만	75.0	12.5	12.5	
	5~10년미만	100.0	0.0	0.0	
	10년이상	96.8	3.2	0.0	

*p< .05, **p< .01, ***p< .001

7)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동물등록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 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동물등록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동물등록		
		등록	미등록	χ^2
성별	여성	41.7	58.3	0845
	남성	50.0	50.0	
주택형태	단독주택	31.6	68.4	1.788
	아파트	48.6	51.4	
	연립/빌라/다세대주택	43.4	56.6	

구분		동물등록		
		등록	미등록	x ²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6.0	64.0	6.426
	1세대 세대(부부)	61.5	38.5	
	2세대	42.2	57.8	
	3세대	71.4	28.6	
	기타	66.7	33.3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28.6	71.4	3.605
	100~150만원 미만	42.9	57.1	
	150~200만원 미만	38.9	61.1	
	200만원 이상	43.5	56.5	
연령대	10대 이하	60.0	40.0	10.081
	20대	28.6	71.4	
	30대	39.4	60.6	
	40대	62.5	37.5	
	50대	26.9	73.1	
	60대 이상	42.4	57.6	
키운기간대	1년 미만	33.3	66.7	6.692
	1~2년 미만	28.6	71.4	
	2~3년 미만	33.3	66.7	
	3~5년 미만	85.7	14.3	
	5~10년 미만	50.0	50.0	

8) 동물병원 방문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동물병원 방문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동물병원 방문(다중응답)						x ²
		예방접종	정기검진	질병치료	상행치료	미용 및 목욕	기타	
성별	여성	40.1	7.0	23.2	2.8	15.5	11.3	3.116
	남성	47.9	4.2	16.7	6.3	12.5	12.5	
주택형태	단독주택	31.6	10.5	31.6	5.3	5.3	15.8	11.088
	아파트	48.1	1.3	17.7	5.1	16.5	11.4	
	연립/빌라/다세대주택	39.6	9.9	23.1	2.2	14.3	11.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5.3	11.8	17.6	5.9	11.8	17.6	15.754
	1세대 세대(부부)	39.2	7.2	25.8	5.2	11.3	11.3	
	2세대	53.8	7.7	0.0	7.7	23.1	7.7	
	3세대	62.5	0.0	25.0	0.0	12.5	0.0	
	기타	37.5	0.0	25.0	0.0	0.0	37.5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48.8	2.4	9.8	2.4	29.3	7.3	39.843
	100~150만원미만	47.2	2.8	27.8	5.6	5.6	11.1	
	150~200만원미만	44.4	3.7	22.2	3.7	11.1	14.8	
	200만원이상	27.0	18.9	24.3	5.4	16.2	8.1	
연령대	10대 이하	57.1	0.0	28.6	0.0	0.0	14.3	38.378
	20대	44.4	11.1	16.7	2.8	13.9	11.1	
	30대	46.4	10.7	21.4	0.0	10.7	10.7	

구분		동물병원 방문(다중응답)						x ²
		예방접종	정기검진	질병치료	상행치료	미용목욕 및	기타	
연령대	40대	38.7	9.7	19.4	9.7	9.7	12.9	38.378
	50대	43.2	2.3	27.3	2.3	18.2	6.8	
	60대 이상	36.4	9.1	18.2	0.0	36.4	0.0	
키르기기간대	1년미만	40.0	10.0	20.0	0.0	30.0	0.0	16.759
	1~2년미만	41.7	8.3	25.0	0.0	16.7	8.3	
	2~3년미만	42.9	14.3	28.6	0.0	14.3	0.0	
	3~5년미만	15.4	15.4	23.1	7.7	7.7	30.8	
	5~10년미만	37.1	11.4	25.7	2.9	14.3	8.6	

9)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가구형태에 따라 반려동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x² =51.832,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어려운 점(다중응답)										x ²
		이웃의 항의나 갈등	가족의 반대	반려견이 다른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여행이나 외출 시의 어려움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간다	교육(배변, 깃털 등)이 어렵다	위생상의 문제	기타	
성별	여성	13.2	2.1	10.7	21.1	9.5	16.5	9.1	12.8	2.9	2.1	11.156
	남성	4.9	2.5	13.6	19.8	6.2	19.8	12.3	9.9	8.6	2.5	

구분		어려운 점(다중응답)										x ²
		이웃의 혐이나 갈등	가족의 반대	반려견/터미널 이용의 불편함 [이용의 불편함]을 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여행/숙박의 불편함 [숙박의 불편함]이 어려움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돌보는데 소모가 많다	교육(배변 학습 등)이 어렵다	위생상의 문제	기타	
주택 형태	단독주택	11.9	2.4	4.8	26.2	4.8	21.4	7.1	14.3	4.8	2.4	9.832
	아파트	9.7	1.5	9.7	18.7	11.2	17.2	11.2	13.4	4.5	3.0	
	연립/빌라 / 시세대주택	12.4	2.8	14.5	21.4	7.6	16.6	9.7	10.3	3.4	1.4	
가구 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0.1	1.0	6.1	18.2	10.1	17.2	14.1	15.2	7.1	1.0	51.832 *
	1세대 세대 (부부)	9.1	4.5	31.8	31.8	4.5	0.0	0.0	18.2	0.0	0.0	
	2세대	13.1	1.8	11.9	21.4	7.7	19.6	7.7	10.7	3.6	2.4	
	3세대	0.0	0.0	6.3	25.0	18.8	18.8	18.8	6.3	0.0	6.3	
	기타	13.3	13.3	20.0	6.7	6.7	20.0	6.7	6.7	0.0	6.7	
소규모 공간	100만원미만	0.0	0.0	0.0	12.5	6.3	31.3	37.5	12.5	0.0	0.0	41.909
	100~150만원미만	12.5	1.4	13.9	11.1	11.1	18.1	8.3	15.3	6.9	1.4	
	150~200만원미만	13.9	2.8	9.7	23.6	8.3	16.7	8.3	8.3	5.6	2.8	
	200만원이상	8.2	2.0	10.2	24.5	8.2	18.4	14.3	12.2	2.0	0.0	
전 연령대	10대 이하	14.3	0.0	17.9	17.9	7.1	14.3	7.1	10.7	7.1	3.6	90.976
	20대	5.9	0.0	17.6	11.8	5.9	35.3	11.8	11.8	0.0	0.0	
	30대	7.4	1.9	14.8	29.6	9.3	13.0	7.4	14.8	1.9	0.0	
	40대	13.3	4.4	17.8	17.8	11.1	17.8	8.9	6.7	2.2	0.0	
	50대	8.5	6.4	8.5	19.1	2.1	12.8	10.6	17.0	6.4	8.5	
	60대 이상	21.4	0.0	8.6	20.0	12.9	15.7	10.0	8.6	1.4	1.4	
키움기간대	1년미만	0.0	0.0	0.0	25.0	25.0	0.0	0.0	0.0	25.0	25.0	47.735
	1~2년미만	16.7	8.3	0.0	25.0	8.3	16.7	8.3	8.3	0.0	8.3	
	2~3년미만	9.5	0.0	19.0	28.6	9.5	9.5	4.8	14.3	4.8	0.0	
	3~5년미만	0.0	0.0	0.0	25.0	16.7	8.3	16.7	8.3	16.7	8.3	
	5~10년미만	12.0	0.0	8.0	20.0	8.0	28.0	12.0	8.0	4.0	0.0	
	10년이상	8.5	0.0	6.4	19.1	6.4	27.7	10.6	14.9	6.4	0.0	

*p< .05, **p< .01, ***p< .001

1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x ²
		돌봄 상식 교육	의료 교육	행동의 풍부화 교육	문제 행동 개선 교육	법적 수 사 항 기 본 에 티 켓 교 육	기타	
성별	여성	22.0	24.8	17.1	28.5	6.5	1.2	1.273
	남성	18.8	22.5	20.0	32.5	5.0	1.3	
주택형태	단독주택	17.5	22.5	15.0	32.5	10.0	2.5	6.928
	아파트	25.7	22.8	18.4	25.7	6.6	.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7.7	25.9	18.4	32.7	4.8	.7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21.8	22.8	18.8	30.7	5.0	1.0	8.942
	1세대세대(부부)	21.4	21.4	21.4	32.1	3.6	0.0	
	2세대	18.9	26.2	15.9	30.5	6.7	1.8	
	3세대	33.3	13.3	20.0	26.7	6.7	0.0	
	기타	29.4	23.5	23.5	11.8	11.8	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23.5	11.8	29.4	23.5	5.9	5.9	21.932
	100~150만원미만	20.8	19.4	20.8	30.6	8.3	0.0	

구분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x ²
		돌봄 상식 교육	인문 교육	행동의 홍보 교육	문제 개선 교육	법적 수 사 항 기 본 에 티 켓 교육	기타	
소득 구간	150~200만원 미만	25.0	23.5	20.6	29.4	1.5	0.0	21.932
	200만원이상	28.6	19.0	11.9	31.0	7.1	2.4	
연령 대	10대 이하	16.0	24.0	20.0	40.0	0.0	0.0	33.867
	20대	23.1	15.4	7.7	46.2	7.7	0.0	
	30대	24.6	30.8	18.5	23.1	1.5	1.5	
	40대	17.8	22.2	20.0	31.1	8.9	0.0	
	50대	15.4	21.2	15.4	32.7	11.5	3.8	
	60대 이상	25.7	28.6	10.0	24.3	10.0	1.4	
키운 기간 대	1년미만	33.3	33.3	33.3	0.0	0.0	0.0	14.456
	1~2년미만	23.1	30.8	7.7	38.5	0.0	0.0	
	2~3년미만	19.0	28.6	14.3	28.6	9.5	0.0	
	3~5년미만	12.5	18.8	18.8	31.3	12.5	6.3	
	5~10년미만	17.4	26.1	26.1	21.7	4.3	4.3	
	10년이상	20.0	20.0	18.0	38.0	4.0	0.0	

11)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x ²
		사료 및 간식 지원	의료비 지원	산책, 목욕, 등용, 동물보험 지원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기타	
성별	여성	19.1	37.7	7.4	14.8	21.0	0.0	4.719
	남성	21.1	37.8	10.0	10.0	20.0	1.1	
주택형태	단독주택	19.5	31.7	4.9	19.5	22.0	2.4	14.865
	아파트	22.9	37.9	7.2	9.8	22.2	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6.0	39.3	10.0	16.0	18.7	0.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21.0	38.1	9.5	11.4	19.0	1.0	7.912
	1세대 세대(부부)	17.4	34.8	8.7	17.4	21.7	0.0	
	2세대	19.2	38.5	7.7	13.7	20.9	0.0	
	3세대	11.8	41.2	11.8	17.6	17.6	0.0	
	기타	29.4	29.4	0.0	11.8	29.4	0.0	
소득기간	100만원미만	20.0	35.0	15.0	15.0	15.0	0.0	16.324
	100~150만원미만	21.1	38.2	10.5	11.8	18.4	0.0	
	150~200만원미만	19.0	35.4	5.1	13.9	26.6	0.0	
	200만원이상	19.1	42.6	6.4	10.6	21.3	0.0	
연령대	10대 이하	18.5	44.4	7.4	7.4	22.2	0.0	27.554
	20대	11.8	41.2	5.9	23.5	17.6	0.0	
	30대	19.0	36.5	7.9	12.7	23.8	0.0	
	40대	22.4	34.7	12.2	12.2	18.4	0.0	
	50대	17.6	39.2	11.8	13.7	17.6	0.0	
	60대 이상	22.5	39.4	2.8	12.7	22.5	0.0	
키운기간대	1년미만	33.3	33.3	0.0	0.0	33.3	0.0	10.557
	1~2년미만	14.3	42.9	0.0	21.4	21.4	0.0	
	2~3년미만	5.6	44.4	5.6	22.2	22.2	0.0	
	3~5년미만	21.1	36.8	15.8	10.5	15.8	0.0	
	5~10년미만	14.8	33.3	11.1	22.2	18.5	0.0	
	10년이상	22.0	38.0	8.0	16.0	16.0	0.0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1)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만족도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08	1.07	.354	.122	
	남성	38	1.05	.226		
	전체	146	1.07	.325		
주택형태	단독주택	16	1.06	.250	.410	
	아파트	62	1.10	.393		
	연립/빌라 /다세대 주택	67	1.04	.272		
	전체	145	1.07	.326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43	1.05	.213	.745	
	1세대 세대(부부)	12	1.17	.577		
	2세대	76	1.08	.356		
	3세대	7	1.00	0.000		
	기타	7	1.00	0.000		
	전체	145	1.07	.326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39	1.03	.160	.568	
	100~150만원미만	29	1.07	.371		
	150~200만원미만	21	1.14	.478		
	200만원 이상	31	1.10	.396		
	전체	120	1.08	.347		
연령대	10대 이하	19	1.05	.229	.274	
	20대	23	1.09	.417		
	30대	21	1.00	0.000		
	40대	24	1.08	.408		
	50대	32	1.06	.246		
	60대 이상	25	1.04	.200		
	전체	144	1.06	.284		
반려동물 거주기간	1년미만	2	1.00	0.000	.604	
	1~2년미만	7	1.00	0.000		
	2~3년미만	9	1.00	0.000		
	3~5년미만	7	1.00	0.000		
	5~10년미만	11	1.00	0.000		
	10년이상	21	1.14	.478		
	전체	57	1.05	.294		

2)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삶의 변화도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11	4.84	.394	.985	
	남성	39	4.74	.751		
	전체	150	4.81	.510		
주택형태	단독주택	17	4.65	.996	1.013	
	아파트	63	4.83	.383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69	4.84	.441		
	전체	149	4.81	.512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45	4.76	.529	.731	
	1세대 세대(부부)	12	4.92	.289		
	2세대	78	4.81	.560		
	3세대	7	5.00	0.000		
	기타	7	4.86	.378		
	전체	149	4.81	.512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40	4.75	.543	1.063	
	100~150 만원미만	30	4.93	.254		
	150~200 만원미만	21	4.90	.301		
	200만원 이상	32	4.75	.762		
	전체	123	4.82	.528		
연령대	10대 이하	19	4.63	.597	1.063	
	20대	26	4.81	.402		
	30대	21	4.95	.218		
	40대	24	4.92	.282		
	50대	33	4.76	.751		
	60대 이상	25	4.80	.500		
	전체	148	4.81	.513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반려동물 거주기간	1년미만	2	5.00	0.000	.095	
	1~2년미만	7	4.86	.378		
	2~3년미만	9	4.89	.333		
	3~5년미만	7	4.86	.378		
	5~10년미만	11	4.91	.302		
	10년이상	22	4.91	.294		
	전체	58	4.90	.307		

3)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동물정책의 필요성은 주택형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 ($F=3.009,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파트’ 집단이 ‘단독주택’, ‘연립/빌라/다세대주택’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동물정책의 필요성은 연령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나 ($F=2.961,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대 이상’, ‘5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11	4.24	.523	.225	
	남성	39	4.19	.654		
	전체	150	4.23	.558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주택형태	단독주택 a	17	4.19	.874	3.009*	b>a,c
	아파트 b	63	4.36	.526		
	연립/빌라/다세대주택 c	69	4.135	.465		
	전체	149	4.238	.556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45	4.340	.553	.342	
	1세대 세대(부부)	12	4.407	.460		
	2세대	78	4.151	.592		
	3세대	7	4.238	.387		
	기타	7	4.222	.425		
	전체	149	4.236	.559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40	4.4056	.56798	1.387	
	100~150만원미만	30	4.1769	.47346		
	150~200만원미만	21	4.2381	.43785		
	200만원 이상	32	4.1979	.59249		
	전체	123	4.267	.535		
연령대	10대 이하 a	19	4.222	.523	2.961*	e, f > b
	20대 b	26	4.047	.614		
	30대 c	21	4.242	.440		
	40대 d	24	4.060	.521		
	50대 e	33	4.424	.651		
	60대 이상 f	25	4.429	.436		
	전체	148	4.231	.557		
반려동물 거주기간	1년미만	2	3.722	.392	.504	
	1~2년미만	7	4.175	.614		
	2~3년미만	9	4.185	.590		
	3~5년미만	7	3.984	.481		
	5~10년미만	11	4.253	.494		
	10년이상	22	4.227	.588		
	전체	58	4.172	.547		

*p< .05, **p< .01, ***p< .001

Ⅲ.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상생복지의 정착을 위해 이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귀하의 반려동물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에 필요한 동물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시 동물보호과 • (사)동물권행동 카라

■ 응답자 기초사항

SQ1	동물 보호자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SQ2	동물 보호자 연령	_____년 _____월 생		
SQ3	거주 지역	서울시 ()구 ()동		
SQ4	주택형태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		
SQ5	가구형태	① 1인 세대(혼자거주) () ② 1세대 세대(부부만 거주) () ③ 2세대 세대(부모자녀 거주)() ④ 3세대 세대(부모자녀손주 거주) () ⑤ 기타 ()		
SQ6	가구 월평균 소득	_____ 만 원	동거가족 수	_____ 명
SQ7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해온 기간	_____ 년		
SQ8	현재 반려동물 외 이전에 반려동물 키운 경험	① 있다 (기간: _____) ② 없다		

Part A. 보호자 및 반려동물 일반사항

A1.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아이가 원해서)
- ② 동물을 좋아해서
- ③ 외로워서

- ④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 ⑤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 ⑥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 ⑦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 ⑧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A2.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②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 ③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간접구조) ④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 ⑤ 기타(_____)

A3. 반려동물의 특성에 체크(√) 또는 기록해 주십시오.

문항	구분 (개) (고양이)	세부사항
종	품종() / 믹스()	
성별/연령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 연령 ()세	과거 병력 × / ○ () 현재 질병 × / ○ ()
급식	①건·습사료 ②잔반 ③기타()	월비용 ()만원
동물등록	①등록(<small>비상</small> B3) ②미등록(<small>비상</small> B4)	내장형 O/X 인식표 O/X
기타특성		

문항	구분 (개) (고양이)	세부사항
종	품종() / 믹스()	
성별/연령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 연령 ()세	과거 병력 × / ○ () 현재 질병 × / ○ ()
급식	①건·습사료 ②잔반 ③기타()	월비용 ()만원
동물등록	①등록(<small>비상</small> B3) ②미등록(<small>비상</small> B4)	내장형 O/X 인식표 O/X
기타특성		

※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 칸이 부족할 경우 조사원이 적절하게 기록.

B16.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그 이유는?_____)
- ② 변화 없다.
- ③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그 이유는?_____)

B17.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아니다
책임감이 생겼다					
생활이 활기차졌다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건강이 좋아졌다					

B18. 이외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B19. 귀하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 ①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 ②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 ③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 ④ 다른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 ⑤ 내가 잘 모르는 곳이라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 ⑥ 버릴 수 있다.
- ⑦ 기타 ()

B20. 반려동물을 그만 키우거나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없었다.
- ② 있었다.(☞B21)

B21. (B20의 ② 항목 응답자만) 어떤 때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 ② 이사 갈 때
- ③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 ④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 ⑤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 ⑥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 ⑦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서
- ⑧ 기타 ()

B22.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기르시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안락사 포함)이 있습니까?

- ① 없었다.
- ② 있었다.(☞B23)

B23. (B22의 ② 항목 응답자만) 지난 5년간 가장 최근에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B24)
- ②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
- ③ 동물병원에 맡겼다.
- ④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
- ⑤ 기타()

B24.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 ② 동물병원에 맡긴다.
- ③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 ④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한다.

- 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 ⑥ 생각해본 적이 없다.
- ⑦ 기타()

B25.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 선택)

- ①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 ② 반려동물 의료 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 ③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산책 교육, 반려동물 용 장난감 만들기 등)
- ④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교육(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 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 ⑥ 기타()

B26.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 선택)

- ① 사료 및 간식 지원
- ② 의료비 지원
- ③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 지원
- ④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 ⑤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 ⑥ 기타()

Part C.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관련 사항

C1.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C2)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C2)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C3)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C3)
- ⑤ 잘 모르겠다.

C2. (C1의 ①, ② 응답자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동물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 ② 동물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 ③ 동물 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 ④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 ⑤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⑥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한다.
- ⑦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 ⑧ 기타()

C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십시오.
()

C4.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바라시는 바를 말씀 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질 의 응 답
전 체 토 론



